DBpia

신라 景哀王의 죽음과 고려 구원군 파병의 진위 문제

Silla king Kyungae(景哀王)"s Death and Koryo Salvation Army"s Question : Focusing on Salvation Army"s Dispatching

저자 (Authors)

박순교
Park Soon Kyo

출처 (Source)

동아인문학 38, 2017.3, 95-141 (47 pages)
The Journal of Society for Humanities Studies in East Asia 38, 2017.3, 95-141 (47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인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96884

APA Style

박순교 (2017). 신라 景哀王의 죽음과 고려 구원군 파병의 진위 문제. 동아인문학, 38, 95-14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5 14:3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景哀王의 죽음과 고려 구원군 파병의 진위 문제

박 순 교*

<目 次>

Ⅰ. 머리말
Ⅱ. 구원군 파병의 전후 상황과 의문
Ⅲ. 고려 1만 구원군의 종적
Ⅳ. 고려 구원군의 主將 문제
Ⅴ. 맺음말

<국문초록>

927년 정월~8월 왕건은 경애왕과 합동으로 경북 내륙 일대를 점령했다. 그럼에도 이후 여덟 달에 걸쳐 당대의 무신(武神) 견훤은 침묵을 지켰다. 견훤의 침묵은 불안한 평화, 전쟁이 예견된 폭풍전야의 시간이었다. 그럴수록 고려에서 후백제로 파견된 세작(細作)의 활동이 없었을 리 없고, 탐마(探馬)가 없었을 리 없다. 주적(主敵) 견훤의 일거수일투족은 필시 왕건에게 보고되었고, 왕건은 삼국의 정황을 누구보다 면밀히 꿰뚫었다고 여겨진다.

우려했던 견훤의 보복은 927년 9월부터 개시되었다. 견훤은, 왕건이 앞서 점령한 지역 일대를 겨냥했다. 즉 치열한 교전이 동일 전역(戰域)에서 시간상 교차(927년)한 셈이다. 한데 견훤의 반격이 개시된, 초미의 상황에서 신라의 구원 요청이 있기까지 왕건은 선제적 대응을

* 한국, 육군 삼사관학교 강의교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심지어 기록에선 왕건이 견훤의 침습 정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한 듯 묘사되고 있다. 심지어 왕건은 경애왕의 구원 요청이 있은 후에조차 즉각 친정하지 않았다. 대신 뚜렷한 군공이나 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공훤을 주장(主將)으로 삼아 출정하게 한 것이 대응이라면 대응의 전부였다. 한데 공훤이 거느리고 출병했다던 '경병(頸兵) 1(만)萬의 구원군'마저 경애왕 죽음의 순간까지 서라벌에 이르지 않았다. 출발은 있었으되, 도착이 없는 셈이다. 구원군의 궤적 등도 죄다 미궁에 빠져 있다. 일련의 사실들은 흔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저간의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마땅하다.

기록상, 신라 왕도의 위기를 구하려 한 고려의 시도(파병)는 세 차례였다. 한데, 가장 출병 규모가 컸음에도, 유독 공훤이 통솔한 '경병 1만'만이 실패했다. 936년 신검과의 최후 회전(會戰)에서 공훤은 3군의 원병, 보급 역할을 맡았을 뿐 실제 전투에조차 투입되지 않았다. 당시 고려군 편제에서 확인되는 37명의 장수(견훤 제외) 중 공훤은 35번째로 거명되고 있다. 또 휘하의 기병 역시 불과 300이었을 뿐이다. 주장 공훤의 여러 전력을 살펴볼 때, 그는 위기를 타파하고 적선(敵線)을 허물며 돌격할 성정(性情)의 인물이 아니었다. 결국 왕건은 선택할 여러 경우의 수, 최적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묘연한 인물(공훤)을 택했다. 요컨대 경애왕 죽음의 일인(一因)에는 왕건의 방관, 심지어는 방조가 엿보인다. 왕건은 경애왕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 외려 교묘한 방법으로 방관, 조장하였다. 이에는 1) 견훤에 대비(對比)한 군사의 열세, 2) 경애왕과의 미묘한 정치, 외교적 갈등, 3) 경애왕과 신라의 부흥에 대한 견제와 차단 4) 견훤에 의해 경애왕이 시해되었을 경우 이뤄질 민심의 극적 반전과 자신에게 떨어질 현실적 이득, 5) 새로 옹립될 신라왕의 정통성 한계를 이용한, 신라 지역 내 귀부와 병합의 가속화 등 현실적 셈법이 작용하였다고 헤아려진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주제어 : 삼국사기(三國史記), 견훤(甄萱), 경애왕(景哀王), 포석정(鮑石亭), 김부(金傅), 신라(新羅), 왕건(王建), 삼국유사(三國遺事)

Ⅰ. 머리말

궁예와 견훤은 반신라 정책에서 공통된 기조를 유지했고 신라는 고립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한데 918년 왕건이 쿠데타로 집권하자, 920년 신라와 고려는 수호하였다. 이른바 신라·고려의 동맹, 합종이 이뤄진 셈이었다. 이는 후삼국 역관계의 변화가 시작된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1]. 그러한 신라·고려 동맹의 일환으로서 고려가 신라 왕도를 구한 것, 혹은 구하려 시도한 것은 세 차례였음이 확인된다. 이른바 ① 920년 10월[2], ② 927년 9월[3], ③ 933년 5월[4]의 경우였다. ①은 경명왕이 왕건과 수호(修好)한 지 9개월 뒤의 일이며, ②는 경애왕이 왕건과 축산을 합동 공격한 지 8개월 뒤의 일이며[5], ③은 김부가 왕건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선린(善隣)을 다짐한 지 27개월 뒤의 일이다.

①의 경우는 고려 주장이 박수경, ②의 고려 주장은 공훤(公萱), ③의 고려 주장은 유금필이었다. 한데 ①, ③은 신라 왕도(王都) 방어에 성공했으나, 유독 ②의 경우만 실패했다. 또 그 결과는 포석정에서 신라 군신(群臣)이 피살, 함몰되고, 심지어 경애왕마저 모종의 세력에 의해 시살(弑殺)되기에 이르렀다. ①의 경우 '보기(步騎) 1만'을 거느린

1) '始與我有隙'(≪高麗史≫권1 世家1 太祖 8년 10월조)
2)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4년조.
3) ≪三國史記≫ 신라본기 권12 경애왕 4년 9월조, ≪三國遺事≫ 권2 기이2 김부대왕조.
4) ≪高麗史≫ 권92 열전5 庾黔弼.
5)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10년(927) 1월조. ≪高麗史≫ 권57 지11 地理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견훤이 박수경의 이름만 듣고도 퇴각했으며, ③에서는 후백제 신검의 군대에 맞선 유금필이 장사 80인 만으로 적선을 돌파, 왕도를 구하였다. 반면 ②의 경우 동원된 고려 군사의 규모가 물경 '경병(頸兵) 1(만)萬'이었음에도 왜 이처럼 뜻밖의 결과로 나타났던가 의문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여러 논자에 의하여 경애왕의 죽음, 견훤의 서라벌 침공이 거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6]. 한데 927년 서라벌 왕도가 침습당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왕건이 파견했다고 하는 고려 구원군 1만의 파병과 그 역할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였을 뿐[7], 진위 문제를 포

6) 927년 포석정 사건과 경애왕의 죽음 등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다음이 있다. 申虎澈, 〈신라의 멸망과 견훤〉, ≪충북사학≫ 2, 1989; ≪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1996. 曺凡煥, 〈신라말 박씨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학보≫ 129, 1991. 〈신라말 경순왕의 고려 귀부〉, ≪이기백고희기념논총≫, 1994. 〈신라말 화랑 세력과 왕위계승 -효종과 김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7, 1999. 강돈구, 〈포석정의 종교사적 이해〉, ≪한국사상사학≫ 4·5합집, 1993. 정우락, 〈포석정 혹은 신라의 빛과 그늘〉, ≪남명원보≫ 30, 2003. 이명식, 〈신라말 박씨왕대의 전개와 몰락〉, ≪대구사학≫ 83, 2006. 이기동, 〈후삼국 시대의 전개와 신라의 종언〉, ≪신라문화≫ 27, 2006, pp.7-22). 정선용, ≪고려 태조의 신라정책 연구≫, 서강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pp.1-146.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박씨 왕가〉, ≪한국민족문화≫ 31, 2008, pp.327-361.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 전쟁 연구≫, 경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1-148. 박순교, 〈신라 景哀王 죽음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三國遺事≫기록을 중심으로-〉, ≪택민국학논총≫ 16, 2015, pp.27-55. 박순교, 〈신라 景哀王의 '포석정 遊幸과 죽음'에 관한 是非 검토-일연의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78, 2016. pp.61-98. 박순교, 〈신라 '景哀王의 죽음'과 견훤·왕건의 攻防 -왕건·견훤의 서한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7, 2016. pp.515-556.

7) 문경현, ≪고려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 연구≫, 형설출판사, 1987. p.136. 문수진,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통일과정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p.93. 권진철, ≪고려태조의 민족통합정책연구≫, 강원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35. 정선용, ≪고려 태조의 신라정책 연구≫, 서강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p.59. 정선용, 〈高麗太祖의 對新羅同盟 체결과 그 운영〉, ≪한국고대사탐구≫ 3, 2009, p.160. 최덕민, 〈팔공산의 왕건설화 지명과 공산전투의 지리학적 탐색〉, ≪지리교육≫ 13, 2006, p.165. 류영철, ≪고려와 후백제의 쟁패과정 연구≫, 영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함한 주장(主將)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논증한 기왕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단에는 경애왕 죽음과 관련한 기록들, 예컨대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이들 책에 삽재된 왕건의 편지, 견훤의 편지 등을 시간적 선후 관계, 자구에 대한 첨삭의 비교, 혹은 사료의 가치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일률적, 등가적으로 해석한 데에 말미암은 탓이 가장 크며, 아울러 당시 상황을 핍진하게 그려내려는 문제의식 없이 역사 기록의 문면 그대로만 좇아 재현하려 한 실책이 컸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는 927년 견훤의 서라벌 침입을 앞두고, 왕건이 파견했다는 1만 구원군의 실체, 주장과 파병의 진위 문제를 축차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Ⅱ. 구원군 파병의 전후 상황과 의문

927년 당시 후삼국 쟁패는 이미 정리하여 제시된 바 있다[8]. 이에 의하면 927년 1월~8월까지 왕건의 공세(전게(前揭) 표⑱~㉗), 927년 9월 이후부터는 견훤의 공세(전게 표㉘~㊻)가 점철, 교차한 시기였다. 양쪽의 승리와 패배는 뒤바뀌었고 그 공로와 업적도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그 변곡점에 포석정 사건 및 경애왕 피살(전게 표㉝~㊱)이 자리하고 있다.

경애왕 피살(전게 표㊱)을 전후하여 왕건과 견훤은 서로 각축했다. 경애왕 피살을 전후하여 견훤이 서라벌을 거세게 압박했던 만큼, 경애왕과 수호(修好)하고 견훤과 대립했던 왕건은 당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경애왕이 왕건에게 구원 요청을 했다고 드러난 만큼[9], 경애왕은

p.79. 이주연, 〈공산전투 전개과정과 관련 지명 및 유적지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6.

8) 박순교, 〈신라 景哀王의 '포석정 遊幸과 죽음'에 관한 是非 검토-일연의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78, 2016. pp.76-79에 걸친 前揭 표에서는 후삼국 쟁패의 추이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언제 왕건에게 구원 요청을 했는가, 왕건은 즉각적이고 유효한 군사적 대응을 취하였는가. 왕건은 주장을 누구로 하여 파병했는가, 파병 시점은 언제이며, 고려 구원군의 동선은 실제 어떠한가, 등을 살필 필요성이 새삼 제기된다. 이하에 927년 경애왕 피살을 전후한 상황을 기록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번	내용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내용	≪三國遺事≫ 기이2 후백제 견훤
1	가-1) ①	秋九月, 萱攻取近品城	가-2) ①	九月. 萱攻取近品城.[今山陽縣]
2	가-1) ②	燒之,	가-2) ②	燒之
3	가-1) ③	進襲新羅高鬱府, 逼新羅郊坼.		
4	가-1) ④	新羅王求救於太祖	가-2) ③	新羅王求救於太祖
5	가-1) ⑤	冬十月, 太祖將出師援助,	가-2) ④	太祖將出師.
6	가-1) ⑥	萱猝入新羅王都.		
7			가-2) ⑤	萱襲取高鬱府.[今蔚州.]
8			가-2) ⑥	進軍族始林.[一云鷄林西郊]卒入新羅王都
9	가-1) ⑦	時王與夫人嬪御出遊鮑石亭,	가-2) ⑦	新羅王與夫人出遊鮑石亭.
10			가-2) ⑧	時由是甚敗

9) 박순교, 〈신라 景哀王의 '포석정 遊幸과 죽음'에 관한 是非 검토-일연의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78, 2016. 〈표 1〉의 ㉝.(≪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연번	내용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내용	≪三國遺事≫ 기이2 후백제 견훤
11	가-1) ⑧	置酒娛樂. 賊至狼狽不知所爲, 與夫人歸城南離宮.		
12	가-1) ⑨	諸侍從臣寮及宮女伶官 皆陷沒於亂兵.		
13	가-1) ⑩	萱縱兵大掠, 使人捉王,		
14	가-1) ⑪	至前戕之		
15	가-1) ⑫	便入居宮中		
16	가-1) ⑬	強引夫人亂之	가-2) ⑨	萱強引夫人亂之.
17	가-1) ⑭	以王族弟金傅嗣立	가-2) ⑩	以王之族弟金傅嗣位
18	가-1) ⑮	然後虜王弟孝廉·宰相英景,	가-2) ⑪	然後虜王弟孝廉. 宰相英景
19	가-1) ⑯	又取國帑·珍寶·兵仗. 子女百工之巧者, 自隨以歸.	가-2) ⑫	取國[帑]珍寶. 兵仗. 子女. 百工之巧者 自隨以歸
20	가-1) ⑰	太祖以精騎五千, 要萱於公山下大戰, 太祖將金樂·崇謙死之, 諸軍敗北太祖, 僅以身免. 萱乘勝取大木郡	가-2) ⑬	太祖以精騎五千, 要萱於公山下大戰, 太祖之將金樂·崇謙死之, 諸軍敗北 太祖, 僅以身免. 而不與相抵. 使盈其貫.萱乘勝轉掠大木城[今若木]

가-1) ④, 가-2)③에서 경애왕은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이 시점에 관하여 지금까지 논자들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하지만 구원과 관련한 경애왕의 사행은 심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왕건의 즉각적 대응 여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경애왕이 처한 위기 상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가-2)에선 ①927년 견훤의 근품성 공격(가-2)①)→②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경애왕의 구원 요청(가-2)③)→③왕건의 파병 채비(가-2)④)→④견훤의 고울부 침입(가-2)⑤)→⑤견훤의 시림 진출((가-2)⑥)→경애왕의 포석정 행차와 피살(가-2)⑦)로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경애왕은 견훤의 근품성(현 문경 산양) 공격 직후에 구원군 파병을 요청한 셈이 된다. 곧 경애왕의 구원 요청이 견훤의 근품성 공격 직후 이루어진 일로서, 애당초 가-1)의 주장과 달리 견훤의 대공세 초반에 이미 고려에 대한 구원 요청이 있었음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럼에도 왕건이 출병을 미루던 중 견훤의 고울부, 시림(始林) 침입이 잇달아 나타난 것이라 부연하고 있다[10].

927년 정월~8월에 걸쳐, 왕건은 친정하여 견훤에 대한 공세를 주도했다[11]. 926년 4월, 백제의 질자 진호가 죽자 견훤은 분노하여 총공세에 나선 적이 있다[12]. 그렇다면 927년 왕건이 견훤 영역에의 침탈에 나선 순간[13] 견훤의 보복은 예견되는 일이었다. 왕건 역시 이러한

10) 박순교, 앞의 논문, p.49, 2015.

11) 왕건과 경애왕은 힘을 합쳐 927년 정월 초사흘(乙卯) 龍州(축산, 예천)를 공략한 것이 확인된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0년 1월) 한국역사 오천년 Ⅱ 국역·원전 고려사 동아대학교 역주). 왕건의 선공은 925년 10월 조물성에서 하릴없이 회군한 지 열네 달 만에, 또 926년 4월 '견훤의 악이 하늘에 가득 차 자멸하기를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한 지 여덟달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 총공세였다. 경애왕의 결전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던 왕건이 대관절 무엇 때문에 가장 거병하기 까다롭다는 한겨울 갑자기 개전한 것일까. 기록은 견훤의 계속적 도발로 왕건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한다("甄萱違盟屢擧兵侵邊王含忍久之. 萱益稔惡頗欲強呑"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0년 1월) 한국역사 오천년 Ⅱ 국역·원전 고려사 동아대학교 역주). 왕건의 명분은 과연 진실일까. 왕건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겼을 고려인이 쓴 모든 기록에조차, 926년 4월 웅진 전투 이후 927년 정월까지 견훤의 도발 흔적은 전혀 없다. 결국 왕건은 견훤에 대한 응전이 아닌, 회심의 선제공격을 벌인 셈이었다. 왕건이 도발한 927년 정월 3일은 전래 세시풍속에서는 신년을 기리는 축일 기간이었다. 또 왕건과 협공한 신라에서 927년 정월 6일은 고래로 萬事를 삼가는 '달도'의 풍속이 있기도 하였다. 요컨대 왕건의 도발은 견훤의 의표를 찌른 완전한 전략, 전술적 기습공격이었다. 이것은 1944년 12월 히틀러에 의한 Ardennes Offensive, 크리스마스 대공세에 비견할 만한 것이다.

12)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9년 4월.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예후를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다. 왕건은 927년 정월 견훤의 역린(逆鱗)을 건드리며 공세에 나선 순간, 이미 견훤의 대반격, 앙갚음에 전전긍긍하였고 이후에도 초조감에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왕건이 927년 정월 3일 용주를 공격한 이래 927년 8월 8일까지 귀경하지 않고 문경을 비롯한 경북 내륙 일대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한 전거이다[14]. 924년~927년에 이르는 시기, 견훤의 3차례 공세, 왕건의 2차례 공세, 3차례의 휴전이 반복되는 등, 혼전이 거듭됐다. 전투 없는 전쟁(休戰), 전투 있는 전쟁(熱戰)으로 점철된 전쟁의 미로 속에서 왕건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작을 풀어 견훤의 동정을 면밀하게 관찰했음이 분명하다. 그 결과 왕건은 완산주를 비롯한 후백제 전역에 심어놓은 세작이나, 최전선의 고려 진영으로부터의 견훤의 거병에 관한 급보를 접하고 있었음이 이치상 마땅하고, 자연스레 소상한 전황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927년 9월, 과연 견훤의 총반격이 재개됐다. 견훤은, 왕건이 927년 1~8월 사이 점령한 경북 내륙 지방을 타격했다. 927년 정월 이후 왕건이 친정(親征)을 통해 확보한 근품성 등이 927년 9월을 즈음하여 견훤의 맹공을 받고 함락됐던 셈이다. 서전을 화려한 승리로 장식한 견훤은 낙동강 물길을 따라 남하하며 차례로 인근 일대를 참화로 물들였다. 눈여겨 볼 대목은 왕건이 접수하였다가, 다시 견훤에게 빼앗긴 지역이 다름 아닌 견훤의 출향(出鄕) 지역 일대라는 점이다[15]. 견

13) ≪高麗史≫ 권1 세가 1 태조 10년 정월 3일조. ≪三國史記≫ 신라본기 권12 경애왕 4년 정월조.

1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0년 8월조.

15) "甄萱 尙州 加恩縣人也"(≪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한편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조에서는 상주 출신, 李라는 姓氏를 가진 인물이라는 ≪三國史記≫의 설을 인용한 것 외에도 ≪李碑家記≫를 인용, 진흥왕의 6세손으로 金氏라는 주장, ≪古記≫를 인용한 지렁이 설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일연이 세 갈래의 출자설을 소개하였지만, ≪三國史記≫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다음 나름의 순서를 정했다는 것은 각각의 신빙성에 따른 것으로 일연 역시 ≪三國史記≫기록을 가장 취신했다고 볼 여지가 높다. 최근 견훤의 출자=경북 문경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으나, 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훤이 지형지물을 활용한 무략(武略)에서도 왕건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이에 있었다.

앞서 927년 정월 3일~8월 8일까지 왕건은 경북 내륙에 위치한 후백제의 둔영을 기습 공략하였다. 이후 일대의 지역은 왕건의 군대가 새로 차지하였다. 한데 왕건의 군대가 견훤에 의해 심각한 공격을 당했다면, 일대에 자리한 고려 진영의 첩보망으로부터 일각일각 패전과 관련한 급보를 받았을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결국 수세의 입장에 처한 고려에서 적극적으로 첩보망을 가동했을 것은 분명하고 급박한 전황은 속속 고려 진영의 사령탑(컨트롤타워) 왕건에게 비보(飛報)되었다고 여겨진다.

927년 당시 전황을 일별하면, ① 927년 왕건과 경애왕 연합에 의한 견훤 진영에의 공격, ② 견훤에 의한 왕건 진영(경북 내륙)에의 대반격, ③ 견훤이 예봉을 돌려 고울부(영천)로 남하하여 경애왕을 겨냥, 신라 영역에 대해 공격하는 단계 등으로 요약된다[16]. 경애왕의 죽음은 위의 ③단계에서 벌어진 일이며, 강한 견훤 대(對) 약한 경애왕의 직접 대결 양상을 띠는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신라 경애왕의 구원 요청을 받을 때까지 왕건은 아무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곧 신라 사신의 구원 요청이 있기까지 왕건이 모종의 행동을 취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927년 정월 왕건이 견훤에게 선공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그 결과 사태의 추이에 만전을 기하고 견훤을 24시간 감시하며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정찰 활동을 게을리 할 수 없음은 상식이며 병법의 '시계(始計)'에 속한다[17]. 왕건이 927년 8월까지 현 경북 내륙 일대에 맴돌며

반 기록에서 견훤이 남해안 방수를 했다는 점, 남해안을 돌아 무진주로 입성했다는 점, 백성의 환호를 받고 후백제를 표방했다는 점 등, 일련의 스토리를 생각할 때 견훤의 출신지를 문경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여겨진다.

16) 박순교, 〈신라 景哀王의 '포석정 遊幸과 죽음'에 관한 是非 검토-일연의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78, 2016. pp.76-7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체류한 것도 견훤의 후폭풍을 염려한 일단일 것이다[18]. 견훤의 침공 소식을 듣고 고사갈이성(高思葛伊城) 성주(城主) 흥달(興達)이 출전을 위해 목욕재계를 하다가, 문득 오른쪽 어깨 위에 '멸(滅)'자가 있는 것을 보고, 괴이쩍게 여겨 재앙을 떠는 푸닥거리를 했으나 열흘 만에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19]은 함의하는 바 크다. 견훤의 침공이 실제 행해진 것도 아닌데, 침공 소식만을 듣고도 번뇌를 거듭한 흥달(견훤의 옛 휘하 장수)이 우민(憂悶)으로 죽었다는 것은, 견훤의 효무(驍武)와 응징의 두려움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이었던가를 짐작하기에 족하다. 실제 견훤이 근품성을 화공으로 초토화하였다는 짤막한 구절에서[20], 백성들의 간과 뇌수가 땅을 적시는 '도광양회'를 떠올릴 수 있다. 바야흐로 살육과 광란의 전운이 감도는 '위기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었다.

한데 다-1)①~③에서.[21] 왕건은 신라 구원 요청이 있기 전까지 전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의뭉스레 말하고 있다. 견훤의 개전~신라 사신의 구원 요청까지 시간차가 있었으니, 왕건이 견훤의 침입 전모를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삼국의 정황을 누구보다 면밀히 꿰뚫고 있었을 왕건이 견훤의 반격이 개시된, 초미의 상황에서 신라의 구원 요청이 있기까지 선제적 대응을 취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점[22]은 마치 '페넬로페(Penelope)의 직조(織造)'처럼 비쳐진다, 견훤의 조그만 반응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해야 했을 왕건이 후

17) 더욱이 왕건의 軍勢는 견훤의 그것과 비교하면 시종일관 열세였다. 견훤의 고백처럼 왕건의 군세는 견훤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삼국유사≫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조)

18) 기록상 왕건은 최소한 927년 8월 8월까지 문경에 체류한 것이 확인된다.(박순교, 앞의 논문, ≪택민국학논총≫, 2015, p.52)

19) ≪高麗史≫ 권92 列傳5 王順式 附 興達. 문경현은 앞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견훤 침공의 위협을 보여주는 일단이라 지적한 바 있다.(문경현, ≪高麗史研究≫, 2000, 8. 형설출판사, p.124)

20)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21)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1 10년(927) 9월조.

22) 박순교, 앞의 논문, 2015, p.5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백제 영역에 심어둔 첩자망의 보고, 혹은 경북 내륙 최전선의 급보를 받고서도 시일을 끌었고, 다시 신라의 구원 요청이 있기까지 아무런 대응 조치 없이 있었고, 심지어는 신라의 구원요청이 있고서도 왕건이 즉각 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역설이다.

927년은 924, 925, 926년과 달리 휴전이 없었다. 927년 정월~8월까진 왕건의 공세, 927 9월~경애왕 죽음까진 견훤의 공세였다. 이른바 927년은 치열한 전쟁의 한 해였다. 그 서전을 촉발한 장본인이 왕건과 경애왕이었다. 무릇 전쟁은 국가의 안위, 군민(君民)의 생사가 달린 일이므로 섣불리 개전할 수 없고, 예후 역시 주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23]. 그 점을 고려할 때, 고려의 첩모망은 완산주를 정점으로 그물망처럼 후백제 전역에 침투해 있었을 것이고, 세작의 눈과 귀, 발을 통해 견훤의 일거일동부터 거병 조짐까지 완산주에서 왕건에게 십분 전해졌다고 보인다. 927년 9월 견훤이 거병, 친솔한 병력의 규모에 대해 기록은 침묵하고 있으나, 경북 내륙 일대를 초토화 할 만큼 강력하고 규모를 갖춘 총공세였다. 이처럼 군수, 식량, 등의 조달을 포함한 대규모 거병이 있었는데도 왕건이 세작의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전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거짓이다.

견훤의 수도 완산주에서 근품성(문경 산양) 일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는 160.95km[24], 도로망을 따라서는 대략 213km~223.87km로 확인된다[25]. 당시 송악~서라벌까지의 진군 속도를 고려할 때[26], 이 정도의 거리는 대략 6.656일~6.993일이 소요된다. 이는

23) "孫子曰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孫子兵法≫ 〈計篇〉1)

24) 국토정보원, 지리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국토정보맵"의 거리측정

25) SK 네비게이션 T맵. 완산주(전주)~근품성(문경 산양)

26) 931년 2월 9일, 김부는 태수 겸용을 보내 왕건의 서라벌 입성을 요청하자 왕건은 겸용이 도착한 931년 2월 9일 송악을 출발, 같은 달 23일 왕도에 도착했다(≪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4년 2월조.) 대략 하루당 80리를 달려, 송악~왕도까지 약 1,100리를 13일에 주파한 셈이다. 또 935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현대식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란 점에서 당시 완산주~근품성 일대의 도달 거리, 소요 시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역도(驛道)나 간선(幹線)이 조성된 것은 고려 이후부터였기에 당시 길다운 길은 없었다고 보인다. 이동 중간 소소한 국지전 역시 있었다고 봐야 한다. 족히 열흘의 거리와 시간을 요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견훤의 거병~근품성까지의 열흘, 서라벌~송악까지 신라 사신의 여정 열흘을 합치면 20일이 넘는다[27]. 그처럼 긴 시간, 긴 공간에 걸쳐 견훤의 군사가 움직이는 동안 왕건이 치보(馳報)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억설이다. 하지만 고려 시대 기록은 이러한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마저 외면하고 있다.

또 하나 이태 전(925년 10월 9일(己巳) 고울부의 능문(能文)이 왕건에게 내투(來投)하자, 서라벌 왕도와 인접하므로 위로하여 돌려보냈다는 구절[28]에 비추어 견훤의 침략이 있을 경우 왕건 자신과의 공조, 서라벌 왕도의 호위 등을 부탁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영천이 가진 지리적 중요성, 능문이 왕건의 각별한 믿음 아래 돌아간 사실을 종합할 때, 고울부의 수장 능문이 견훤의 고울부 침입 과정을 왕건에게 치보하지 않았을 리 없다. 실제 927년 이후에도 능문의 생존이 확인된다[29]. 따라서 그와 휘하 무리의 전사 및 전멸로 인해 통신이 두절되었을 개연성도 없다.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왕건은 세 루트를 통해 견훤의 동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첫째, 완산주를 비롯한 백제 강역에 심어 놓은 첩자들

11월 3일, 김부가 서라벌 왕도를 떠났고 9일 만인 935년 11월 12일, 그 행렬이 송악 외곽에 도착했다(≪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신성대왕 18년 11월조). 한겨울 북풍을 거슬러 감행한 장정임에도 천 백리 길을 하루에 120여 리씩을 달려 도착했음이 확인된다.(박순교, 앞의 논문, 2015, p.50)

27) 박순교, 앞의 논문, ≪인문연구≫ 78, 2016. pp.82-83.

28)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2년조,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4년 10월 10일조.

29) ≪비로암진공대사보법탑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의 보고망, 둘째, 경북 내륙에 둔영을 구축한 고려군의 치보, 셋째, 왕도의 인후(咽喉)라 할 고울부 능문의 보고 등 세 갈래를 통한 상황 파악이 가능했다. 한데 신라 구원 사절이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까지 왕건이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왕건은 자신이 견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평소 경애왕에 대하여 견마지로의 충심을 지녔다고 술회, 역설하고 있다[30]. 한데 927년 경애왕이 견훤의 군사적 공격의 표적이 되었던 그 때, 왕건이 경애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도무지 포착할 수 없다. 그토록 사모하고 충심을 맹서했다던 대상, 경애왕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처했을 때, 왜 왕건은 용기 있는 즉각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그 결과 신라 경애왕이 구원요청을 하는 것, 그 기록 자체부터 공수 동맹의 심각한 모순이며, 왕건의 적나라한 방관을 보이는 확증인 셈이다.

왕건은 앞서 926년 백제의 질자 진호가 죽고 견훤이 공세에 나섰을 때, 대응을 삼가고 수성에 골몰했던 적이 있었다. 927년 9월~경애왕이 죽는 순간까지, 마치 왕건은 926년의 그 때처럼, 철저히 군사 대응을 삼가고 복지부동하고 있다. 과연 왕건은 견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견훤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의 힘에 의지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견훤의 분노를 풀 제3의 인물, 가령 왕건과 군사 동맹을 맺은 한 축인 경애왕을 희생양으로 삼아 견훤의 손에 경애왕이 희생되어 견훤의 분노가 누그러지고 반전이 일어나길 기대한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경애왕이 견훤의 손에 죽어 민심이 반(反)견훤으로 돌아서고 그 치솟는 민심의 분노를 바탕으로 대의를 내세워 대세를 뒤집고 천하 통일의 호기를 잡으려 한 것인지 여러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왕건은 과연 신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녔을까. 이를 위해 기록의 차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31].

---

30) '以申犬馬之勤. 再擧干戈'(≪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및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조에 공히 인용된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서한')

31) 박순교, 앞의 논문, 2015, pp.42-4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표 2〉

연번	내용	≪三國史記≫ 신라본기 권12 경애왕	내용	≪三國遺事≫ 권2 기이 김부대왕
1	나-1) ①	秋九月甄萱侵我軍於高鬱府	나-3) ①	九月百濟甄萱. 侵羅至高鬱府
2	나-1) ②	王請救於太祖,	나-3) ②	景哀王請救於我太祖
3	나-1) ③	命將出勁兵一萬往救	나-3) ③	命將以勁兵一萬往救之.
4	나-1) ④	甄萱以救兵未至, 以冬十一月, 掩入王京.	나-3) ④	救兵未至. 萱以冬十一月掩入王京
5	나-1) ⑤	與妃嬪宗戚	나-3) ⑤	王與妃嬪宗戚
6	나-1) ⑥	遊鮑石亭宴娛, 不覺賊兵至	나-3) ⑥	遊鮑石亭宴娛. 不覺兵至.
7	나-1) ⑦	倉猝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 奔走逃竄. 其爲賊所虜者, 無貴賤皆駭汗匍匐, 乞爲奴僕而不免	나-3) ⑦	倉卒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 四散奔走. 爲賊所虜. 無貴賤匍匐乞爲奴婢
8	나-1) ⑧	萱又縱其兵, 剽掠公私財物略盡	나-3) ⑧	萱縱兵摽掠公私財物
9	나-1) ⑨	入處宮闕,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數人在後宮, 拘致軍中	나-3) ⑨	入處王宮.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數人匿在後宮, 拘致軍中
10	나-1) ⑩	逼令王自盡, 強淫王妃, 縱其下, 亂其妃妾.	나-3) ⑩	逼令王自進. 而強淫王妃. 縱其下亂其嬪妾
11	나-1) ⑪	乃立王之族弟	나-3) ⑪	乃立王之族弟傅爲王
12	나-1) ⑫	權知國事, 是爲敬順		
13	나-2) A	敬順王立. 諱傅, 文聖大王之裔孫, 孝宗伊湌之子也, 母桂娥太后.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연번	내용	≪三國史記≫ 신라본기 권12 경애왕	내용	≪三國遺事≫ 권2 기이 김부대왕
14	나-2) B①	爲甄萱所擧卽位	나-3) ⑫	王爲萱所擧卽位
15	나-2) B②	擧前王屍, 殯於西堂	나-3) ⑬	前王尸殯於西堂
16	나-2) B③	與群下慟哭	나-3) ⑭	與群下慟哭
17	나-2) C	上諡曰景哀, 葬南山蟹目嶺		
18	나-2) D	太祖遣使弔祭	나-3) D	我太祖遣使吊祭

경애왕의 구원 요청은 가-2)③과 달리, 견훤의 고울부 침공(나-3) ①) 직후 이루어졌으며, 왕건의 1만 구원군 파병(나-1) ③, 나-3)③)이 보이고 있다. 위 ≪삼국유사≫의 Time Line은 다음과 같다. Ⓐ9월 견훤의 고울부 침공(나-1) ①,나-3)①)→Ⓑ경애왕의 구원 요청(나-1) ②, 나-3)②)→Ⓒ왕건의 1만 구원군 파병(나-1) ③,나-3)③)→Ⓓ11월 견훤의 서라벌 왕도 침입(나-1) ④,나-3)④)의 4단계(Ⓐ,Ⓑ,Ⓒ,Ⓓ)로 정리된다. 위의 가-2) ③과 달리, ≪삼국유사≫나-3)에서는 경애왕의 구원 요청이 고울부 침공 직후 이뤄졌다고 설정하고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는 ≪삼국사기≫가 견훤의 근품성(近品城) 기록 자체를 생략했기 때문일 개연성이 크다[32]. 앞서 왕건이 견훤이 침습을 몰랐으며,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서야 알았다는 대목에서 왕건의 방관, 거짓이 느껴지며, 그에 이어 나타나는 구원군 파병도 의심의 눈길을 거

32)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4년조(927년)에서는 4월 ① 왕봉규의 후당 사절 파견, ② 강주 휘하 돌산 등 4향(鄕)의 왕건에의 귀부가 보이고, 견훤의 근품성 공격은 생략된 채로 견훤의 고울부 공격이 서술되어 있다. 근품성 공격을 서술할 경우 견훤의 침공 시점은 소급되며, 이에는 왕건의 미온적인 대응과 경애왕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드러낼 공산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인 삭제가 있었다고도 여겨진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둘 수 없다.

일단 여기서 나-1) ②,나-3)②의 문면 그대로 출병을 사실로 인정하고 넘어가자. 한데 9월~11월 두 달간 왕건의 구원군은 서라벌에 도달하지 않았다. '구원군이 서라벌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급거 파병되었음에도 견훤이 서라벌 왕도로 들어가기까지 끝내 도착하지 않았다', 즉 '출발은 있었으되 도착이 없었다(나-1) ④, 나-3)④의 '부지(不至)')는' 자구는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송악~서라벌까지의 거리, 이동 시간, 당시 상황의 위급함 등을 고려할 때, 수차례 왕복을 해도 남았을 것임에도 서라벌에 도착하지 않았고, 한 걸음의 자취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나-1) ③의 '경병일만왕구(勁兵一萬往救)'와 나-1) ④의 '구병미지(救兵未至)'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과 모순이 있어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셈이다.

Ⅲ. 고려 1만 구원군의 종적

송악~서라벌까지의 소요 시간이, 최장 9일~13일까지임을 고려할 때 출발한 고려 구원군이 서라벌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혹이 아닐 수 없다[33]. 경애왕 구원요청 시점(나-1) ①,②)~경애왕 피살의 시점(나-1) ④)까지, 두 달에 걸쳐 고려 구원군의 동선은 일절 포착되지 않는다. 심지어 927년 경애왕 사후, 한겨울에 있은 왕건과 견훤의 대회전(大會戰)(가-1) ⑰,가-2)⑬팔공산 동수전투)에서 조차 1만 군사의 흔적은 간취되지 않는다[34].

33) 박순교, 앞의 논문, 2015, p.50.

34) 나-1) ③의 '경병(勁兵)', 그것도 '1만'에 달하는 '대군(大軍)의 실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으며, 출병 자체에 의문을 표시한 선례도 없었다. 936년 일리천 전투의 고려군 편제를 보면, 경기를 거느린 이는 유금필뿐이며, 대개 마군, 기병으로만 편제되어 있다. 까닭에 '경병'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다-1)九月甄萱攻燒近品城進襲新羅高鬱府逼至郊畿①新羅王遣連式告急②王謂侍中公萱大相孫幸正朝聯珠等曰,③"新羅與我同好已久今有急不可不救."④遣公萱等以兵一萬赴之⑤未至⑥萱猝入新羅都城.[35]

위의 기록 다-1)에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선 보지 못한 내용들이 확인된다. 곧 경애왕이 왕건에게 보낸 사신의 이름이 '연식(連式)'이었다는 것(다-1)①), '신라와 고려의 동호(同好)가 오래된 지라 지금 급함이 있다 하니 가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왕건의 발언(다-1)③)이 새로 보태어져 있다. 그리고 왕건이 실제 공훤(公萱) 등을 보내 출병한 것처럼 되어 있다(다-1)④). 한데 '미지(未至)'란 구절(다-1)의 ⑤)이 직후 나타난다.

위 다-1) ④대로 출병이 있었다면, 가-1) ⑰의 공산 회전에서 견훤과 조우, 그 예봉을 막을 군대는 왕건이 아니라, 앞서 파병한 1만 군대라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견훤과의 공산 전투에서 1만의 고려 구원군과 왕건의 친솔군(親率軍)이 모두 간취되어야 마땅하다. 한데 다)-1의 ⑤의 기록대로라면 고려 구원군은 실상 증발되었다고 표현해야 옳을 정도이다. 고려에서 1만군은 과연 증발해도 좋을 정도의 작은 비중에 해당하는 것일까.

후삼국의 동란을 통틀어 패자와 향방을 가르는 건곤일척의 승부 중 가장 큰 규모는 936년 9월 갑오(甲午), 왕건과 신검의 일리천 회전이

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가 아닌가 여겨진다. 중간 경유지조차 확인되지 않기에, 기록대로라면 1만 대군의 행방은 전설처럼 행간에서 실종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The answer to way of that army is blowing in the world). 한편 최덕민, 〈팔공산의 왕건설화 지명과 공산전투의 지리학적 탐색〉, ≪지리교육≫ 13, 2006, p.165와 류영철, ≪고려와 후백제의 쟁패과정 연구≫, 영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7, p.79에서는 왕건이 당시 송악에 있었고, 구원군의 출발지 역시 송악으로 비정하여 출병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35)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1 10년(927) 9월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라는 것은 물론이다. 당시 왕건이 거국적으로 총동원한 군사는 87,500명이었다[36]. 그 중 북방 유목민의 군사 9,500명을 빼면 당시 왕건의 실제 병력은 78,000명이었다. 여기에는 동해 지방 왕순식의 병사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왕건의 실제 병력은 더 작아진다. 903년~927년까지 왕건의 동원 병력은 1만을 넘어선 전례가 없다. 927년 왕건의 공산 회전에서도 병력은 5천에 불과했다. 왕건에 비해 군사가 갑절이나 많았다는 견훤이[37] 934년 운주 전투 당시 5천의 군사였고[38], 920년 대야성 전투 당시 견훤의 군사가 보기 1만이었다[39]. 왕건의 친정도 아닌 상태에서 1만의 거병, 파병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고려 총 군사의 2할에 달하는 1만의 동원치곤 군사 편제, 출병 일자, 동선 등이 불확실하다. 기록에선 1만 대군의 출병일자, 동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40]. 가-1) ⑤에서 10월에 출병했다던 군대는 그 이후의 전체 행적마저 묘연하다[41]. 특히 '명장출경병일만왕구(命將出勁兵一萬往救)'(나-1) ③, 나-3)③)의 글자는 '장수에게 명하여 勁兵 1만을 내어 가서 구하게 했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곧이어 '구병미지(救兵未至)'(나-1) ④,나-3)④),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다.

송악~서라벌의 도착 시간(최장 9일~13일)을 감안할 때, 출병 사실(다-1)④)과 도착하지 않은 사실(다-1)⑤) 자체는 명백한 딜레마(모순구조)를 이룬다. 혹여 후백제군과 사력을 다한 치열한 교전이 있었을

36) ≪高麗史≫ 권2世家2 太祖1 19년(936) 9월조. 당시 9월 甲午일이라고 나오나 甲午는 없다. 한편 ≪東史綱目≫ 6상 936년조에는 갑오(8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8일은 癸亥에 해당한다.

37)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

38) ≪高麗史≫ 권92 열전5 庾黔弼.

39)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4년조.

40)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0년조(박순교, 〈신라 景哀王의 '포석정 遊幸과 죽음'에 관한 是非 검토-일연의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78, 2016. 〈표 1〉의 ㉛, ㉜).

41) ≪高麗史≫ 권2世家2 太祖1 19년(936) 6월조에는 將軍 述希에게 步騎 1만을 천안에 보낸 기록, 즉 도착 지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927년 고려 구원군 1만의 파병과는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것이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구병미지(救兵未至)'(나-1) ④, 나-3)④)에 대한 구원군의 중간 경로, 구원군이 막힌 원인, 구원군과 백제와 대소(大小)의 전투 등의 기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들은 견훤의 군사와 싸웠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행방조차 묘연하다. 일견 견훤군과 싸워 궤멸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으나, 공훤을 포함한 고려군 지휘부의 이후 생존이 명확히 확인된다[42].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태조장출사원조(太祖將出師援助)'(가-1) ⑤, 가-2)④)는 '왕건이 장차 군사를 내어 원조하려 했다'라고만 되어 있다. 이 말대로라면 왕건은 출병하지 않았음을 내비친다. 일연은≪삼국사기≫(가-1) ⑤)의 '출병 시점 10월'이란 기사를, ≪삼국유사≫(가-2)④)에서 아예 생략하였는데, 이 역시 출병의 사실성에 의문을 지닌 일단이 아닌가 여겨진다[43].

무엇보다 927년 경애왕의 죽음을 이해할 관건이자 동시대 자료인 견훤의 서한[44], 왕건의 서한[45]에서도 1만 고려군의 존재는 전무하다. 견훤이 여타의 소소한 전투까지 상세히 열거하며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면서도 가장 규모가 큰 '1만 고려군'과의 공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출병 자체가 실제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왕건은 자신의 서한에서 평소 존주(尊主)와 견마지로의 태도를 표방한 것[46]을 역설

42) 고려군 지휘부로 상정할 그룹은 공훤, 연주, 손행 등인데, 손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후 생존이 확인된다. 연주는 936년 後百濟와의 마지막 결전이었던 一利川싸움에 元甫서 大相 金鐵, 洪儒, 朴守卿, 그리고 元尹 萱良과 함께 馬軍 1만 명을 거느리고 3軍 중 右軍에 소속되어 참전하였다.(≪高麗史≫ 권2 世家2 太祖1 19년(936) 9월조.)

43) 왕건의 발언, 다-1)의 ③ 역시, 파병에 대한 고려 내 이견이 적잖이 있었고 그에 따른 왕건의 발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파병이었다면 굳이 왕건이 이와 같은 蛇足을 붙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44)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및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조에 공히 인용된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서한'

45)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및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조에 공히 인용된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서한'

46) '以申犬馬之勤. 再擧干戈'(≪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및 ≪三國遺事≫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하고 있는데, 경애왕의 죽음에 관한 전후 관계를 통하여 볼 때 왕건 자신이 견마지로를 다했음을 드러낼 가장 중요한 전거는 1만 구원군의 파병 사실이다. 한데 왕건 역시 자신의 편지 속에서 고려의 구원군 1만에 관하여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곧 당시 견훤과 왕건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주고받은 편지, 말하자면 동시대 기록이라 해야 할 자료 속에서, 견훤과 왕건이 공히 고려 구원군에 대한 언급을 일점일획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파병의 진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한 것이라 믿어진다.

한편 '1만'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군수, 편제 등 거병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간 왕건이 친솔한 군대조차 5천 내외의 규모인 것을 고려한다면 1만 군사의 동원, 그 자체는 초유의 일이었다. 1만의 군사를 보급과 편제를 갖추고 소모(召募), 징집(徵集)하는 과정 자체에는 적잖은 시일이 걸린다[47]. 까닭에 1만이란 숫자의 동원 자체는 일견 적극적 구원의 의미를 뜻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일을 끌어 출병을 늦추고 사태의 변화를 방관 혹은 회피하려는 이중적 의미를 함의한 위장일 수도 있다[48]. 이에서 왕건이 말한 1만의 군대란 명목상의 군대, 실체가 없는 '유령 군대'로서, 의외의 의도, 곧 출병 시일을 끌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음험한 묘책, 기만전술의 일단이 아닌가 보인다[49].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조에 공히 인용된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서한')

47) 936년 일리천 전투를 위한 전쟁 준비에는 대략 3달이 걸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 正胤(태자) 武와 將軍 述希에게 步騎 10,000을 천안에 보낸 것이 936년 6월, 왕건이 천안에서 랑데부를 가진 것이 936년 9월임이 확인된다.(≪高麗史≫ 권2世家2 太祖1 19년(936) 6월조와 9월조.)

48) 왕건이 예전 말과 행동에 있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도 참고할 일이다. 925년 曹物郡에서 벌어진 왕건과 견훤의 會戰에서 왕건이 견훤의 화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호 인질을 교환하려 하자, 경애왕이 견훤의 성정을 직설적 화법으로 묘사하며 양자의 화의를 반대했다. 그러자 왕건은 경애왕의 뜻을 존중하였다고('太祖然之') 했다. 한데 행동으로 옮겨진 왕건의 선택은 경애왕의 뜻을 무시한, 견훤과의 화의 성사였다(≪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2년조,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8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Ⅳ. 고려 구원군의 主將 문제

고려 구원군의 의문은 주장(主將) 공훤에서 더욱 확산된다. 먼저 신라를 구원할 의도가 있었다면 왕건이 즉시 친정했어야만 한다. 당시 후삼국의 군세는 1강(견훤) 1중(왕건) 1약(경애왕)의 형세였고, 강한 견훤에 대항해 나머지 둘의 합종이 진행된 상태였다[50]. 왕건의 즉위 직후 이흔암을 필두로 한 마군(馬軍)장군들의 반란이 접종했고, 충청도 일대 세력은 뚜렷한 교전조차 없이 썰물처럼 왕건을 떠나 견훤에게 투항했다. 견훤의 군세가 욱일승천의 기세였던 반면 왕건은 이와 대비될 만큼 약화일로였다. 견훤에 비해 열세에 처한 왕건과 경애왕의 연대는 절실했다. 927년 정월 용주 공격 성공에서 보이듯 양자의 합종은 일견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한데 왕건은 927년 9월 견훤이 예봉을 남으로 돌려 신라를 겨냥하는 시그널, 이른바 합종의 맥락이 붕괴되려 한 조짐이 명백해진 순간에도 복지부동, 신라의 구원 요청이 있기까지 전모를 모른 듯 능청을 떨고 있다. 앞서 왕건은 〈표 1〉의 ⑭에서 소극적 수성(守城)을 고집한

49) 고려 구원군을 둘러싼 일말의 의혹은 고려군의 전력과 관계될 수 있다. 견훤과 交戰한들, 승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전쟁을 원치 않지만 전쟁을 못한다는 것을 알리기 힘들어 나온 일종의 고육책일 수 있다. 들어줄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서 파병의 거짓 움직임, 이중적 행태를 보인 단서가 바로 구원군의 숫자 '1만'이 아닌가 한다.

50) 이는 중국 삼국시대 조조의 강한 위나라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손권의 오·유비의 촉 동맹, 이른바 연횡책인 손권·유비 동맹과 비견될 만큼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이후 조조의 위와 손권의 오는 형주를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형주의 관우를 공격한 사실이 주목된다. 물고 물리는 삼국시대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견훤, 왕건, 경애왕으로 대표되는 후삼국 시대에서도 왕건과 경애왕의 동맹이 한결같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동맹의 밀도가 엷어지거나, 아니면 동맹이 와해 직전에 다다라 견훤에 의해 경애왕이 거세되도록 왕건의 방관, 방조가 있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애왕은 왕건과 견훤의 대립을 부추겨 양자 모두의 세력 약화를 꾀함으로써, 천하삼분지계를 추구한 것은 아닐 지 생각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적이 있었는데, 왕건이 즉각 친정하지 않은 것 역시 왕건의 의지 결여, 왕건의 방관이 아닌가 여겨진다[51].

위의 다-1) ④를 보면 왕건이 임명한 원군의 주장은 시중 공훤이었다. 기록상 공훤은 그 이전 무쌍(無雙)의 용맹한 공적이 없다. 이름이 알려진 용장도 아니며, 병력을 이끌고 전투를 벌인 이력도 없다. 1만의 정예 군사를 통솔하려면 과거 수천의 군사를 자유자재로 부린 이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고려 왕조에서 초유의 1만 군사를 동원하면서 무명의 공훤을 임명한 대목은 이상하기 짝이 없다. 공훤은 왕건의 개국 공신 1등 4명(홍유, 신숭겸, 배현경, 복지겸), 개국공신 2등 7명(견권, 능식, 권신, 렴상, 김락, 연주, 마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록상 1만 대군을 서슴없이 맡길 만큼, 왕건의 최측근 심복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공훤의 본관은 신청(信川) 강씨(康氏), 성명은 강공훤이었다. 공훤의 성명은 '지기주제군사(知基州諸軍事) 상국(上國) 강공훤(康公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가제자(在家弟子) 좌승(佐丞) 공훤(公萱)'이라는 구절에서 신심(信心) 깊은 재가(在家)의 불제자였다. 이는 동시에 생사가 엇갈리는 살벌한 전장의 장수와는 거리감이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52]. '기주', '상국'이란 구절에서 강공훤과 관련한 관직 역시 후삼국 통일 이후의 작명(爵名)임도 알 수 있다[53]. 강공훤은≪고려사≫에 4번

51) 왕건의 친정은 경애왕이 죽고 나서 그 때를 기다렸다는 듯 절차와 명분을 갖추며 전략적으로 이뤄졌다. 경애왕 생시에는 그처럼 방관적 입장이었던 왕건은 무엇을 노리고 경애왕 사후 행동에 나선 것일까. 먼저 왕건은 경애왕 죽음을 듣고 弔使를 파견했다. 이것은 사신의 행렬이 지역 일대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견훤의 악행을 확대, 포장, 선전하기 위함일 것이었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 민심을 견훤에게서 돌리려는 일단일 것임은 자명하다. 견훤은 경애왕을 죽인 이후 서라벌 왕궁에서만 15일을 기거했다(박순교, 앞의 논문, 2015, p.46). 이 말은 왕건이 경애왕 죽음이 있고서도 최소한 15일 간 親征에 오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견훤에 의해 김부가 옹립된 이후, 왕건은 일련의 흐름, 민심의 동향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질 즈음 군사 작전을 행했을 해석이 일단 가능하다.

52) 高麗國彌智山菩提寺故教謚大鏡大師元機之塔碑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나타나는데, B①927년(다-1), B②930년(다-2) B③935년(다-3), B④936년[54]이 그것이다. 강공훤은 B①에서 1만 원병의 주장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전 무공은 없다. 강공훤은 어떤 용력, 성정을 지닌 인물일까. 아래 기록을 통해서 그의 성정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 다-2)十二年甄萱圍古昌郡黔弼從太祖往救之行至禮安鎭太祖與諸將議曰Ⓐ戰若不利將如何?"大相公萱洪儒曰 Ⓑ若不利不可從竹嶺還宜預修開道." 黔弼曰Ⓒ臣聞'兵凶器戰危事有死之心無生之計然後可以決勝.' 今臨敵不戰先慮折北何也? 若不及救以古昌三千餘衆拱手與敵豈不痛哉? 臣願進軍急擊."Ⓓ太祖從之Ⓔ黔弼乃自猪首峯奮擊大破之. 太祖入其郡謂黔弼曰"今日之捷卿之力也."[55]

위의 다-2)는 927년 포석정 사건에서 3년이 지난, 930년 정월의 상황을 담고 있다. 당시 고창(안동)에는 견훤에게 포위당한 고려군 3천(千)이 생사의 기로에 처했고, 구원에 나선 왕건은 고창 북방 30리 지

53) 基州는 고려 판도 동남방에 위치한 오늘날의 豊基지역인데 당시 강공훤이 가지고 있던 知基州諸軍事上國이란 직함만 놓고 보면 基州일대의 호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上國이란 의미가 相國과 동일한 것이거나 아니면 上柱國의 오기로 본다면 기주지방의 호족이기보다는 중앙관료의 일원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知基州諸軍事란 직함이 한동안 지방호족들이 스스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고려초기의 경우에는 중앙 중신이 국경지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직함을 띠고 그 해당지역에 파견되어 대처했던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高麗史≫ 권1, 世家 太祖 원년 8년 癸亥條에 웅주·운주 등 10여 주현이 배반하여 후백제 귀부하자 태조는 이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시중 金行濤를 파견하였는데, 그 때 가졌던 직함이 〈東南道招討使 兼 知牙州諸軍事〉이었던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중략… 그리고 麗嚴이 基州로 오자, 당시 기주의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知基州諸軍事 강공훤이 麗嚴을 맞아들여 숭앙하며 그의 檀越이 되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崔圭成, 〈豪族聯合政權說에 對한 硏究史的 檢討〉, ≪國史館論叢≫ 第78輯, Ⅱ장. 豪族聯合政權說의 典據들에 대한 비판 中 3절. 廣評省의 성격과 역할)

54) ≪高麗史≫ 권2世家2 太祖 19년(936) 9월조.

55) ≪高麗史≫ 권92 열전5 庾黔弼4.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점인 예안(禮安)에서 군략(軍略)을 논하던 상황이었다. 다-2)의 Ⓐ에서 왕건은 싸우기도 이전, 전황의 불리를 걱정하고 있었다. 왕건의 수세적 태도는 이미 여러 기록[56]에서도 간취되는 바, 왕건의 소극적 태도가 이에서 재확인된 셈이다[57]. 다-2)Ⓑ에서 공훤(公萱)은 탈출, 도주를 위한 샛길을 닦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진보의 선필이 동쪽 배후를 받치는 상황에서도[58] 공훤, 홍유는 진공이 아니라 퇴각의 문제를 염려했다. 공훤은 왕건에 맞춰 우회, 도피, 퇴로 등을 거론할 만큼 소극적 성정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의 기저에는 적을 제압할 무용의 부족과 같은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또한 왕건의 소극성을 누구보다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시종 일관 왕건의 의도대로 언동을 꾀하는 권력 밀착형의 인물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유금필만이 왕건의 뜻을 거스르며, 다-2)Ⓒ에서 연도를 끊어 싸움을 승리로 이끈 회음후 한신의 고사와 같이 '무생지계(無生之計)', 사력을 다한 돌격을 주장했다. 기록[59]에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유금필의 성정, 노선은, 왕건과는 다른 뜻을 드러낸 경애왕의 성정과 흡사함이 엿보인다. 다)-2 Ⓑ,Ⓒ에서는 소극적 공훤, 적극적 유금필이 뚜

56) ≪高麗史節要≫ 권1 태조신성대왕 8년,≪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9년,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3년조 (박순교, 〈신라 景哀王의 '포석정 遊幸과 죽음'에 관한 是非 검토-일연의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78, 2016. pp.76-77. 〈표 1〉의 ⑨, ⑭, ⑯)

57) 다-2)의 Ⓐ와 Ⓑ를 고려할 때, '견훤의 악이 차 스스로 자멸하기만 기다리겠다.'고 토로(⑯)했던 왕건의 天性은 그대로였다. 경애왕의 요청에도 즉각적 도움을 외면한 것으로 의심되는 왕건은, 이제 눈앞에 자국 군사 3천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퇴각(줄행랑?)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58) 四年, 春正月, 載巖城將軍善弼降高麗, 太祖厚禮待之, 稱爲尚父. 初, 太祖將通好新羅, 善弼引導之, 至是降也, 念其有功且老, 故寵褒之.(≪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4년조(930년)

59) ≪高麗史節要≫ 1권 태조신성대왕 8년,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2년조,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8년(박순교, 〈신라 景哀王의 '포석정 遊幸과 죽음'에 관한 是非 검토-일연의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78, 2016. pp.76-77. 〈표 1〉의 ⑨, ⑩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렷이 대비된다.

927년 포석정 사건을 전후한 엄중한 시기, 1만의 주장으론 공훤이 어울리지 않음이 확인된다. 즉 공훤은 위기를 타파하고 적선(敵線)을 허물며 돌격할 성정의 인물이 아니었다. 또 B④ 936년조를 보면 신검과의 최후 회전(會戰)에서도 유금필이 북방의 경기(勁騎) 9,500명을 통솔한 것과 달리 공훤은 3군의 원병, 보급 역할을 맡았을 뿐 실제 전투에조차 투입되지 않았다. 936년 당시 유금필이 마군(馬軍) 중에서도 최강의 경기(勁騎)를 통솔한 반면, 고려군 편제에서 확인되는 37명의 장수(견훤 제외) 중 공훤은 35번째로 거명되고 있다. 휘하의 기병 역시 불과 300이었을 뿐이다[60].

927년 경애왕이 구원을 요청한 당시 상황의 엄중함으로 미루어, 불패의 무장, '상승장군(常勝將軍)'으로서 견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후백제의 포위망을 풀게 할 최적의 인물이 구원군 주장에 선택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원군의 주장은 필히 유금필이었어야 한다. 그는 923년 4월 북계(北界)의 골암진(鶻巖鎭)의 수장(戍將)으로 나가 북번의 추장 3백 명을 단번에 굴종시켰고[61], 925년 10월에는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으로 충청의 연산(燕山), 임존(任存)을 장악했다[62]. 그 즈음 조물군(曹物郡)에서 견훤에게 열세였던 왕건을 돕고자 충청에서 경북까지 진출, 군세를 일거에 반전시켜 견훤의 화의를 이끌어낸 군신(軍神)이었다[63]. 포석정 사건 직후인 928년 7월, 청주(靑州)의 왕건을 급습한 후백제 김훤(金萱), 애식(哀式), 한 장(漢丈) 등 3천여 명의 군

60) ≪高麗史≫ 권2世家2 太祖 19년(936) 9월 8일(甲午)조 및 문경현, ≪高麗史硏究≫, 2000, 형설출판사, p.138. 또한 공훤과 함께 출병한 것으로 나타나는 자들(孫幸, 聯珠)의 관위, 大相은 고려 16관등 중 7위, 正朝는 16관등 중 12위에 불과하다.

61) ≪高麗史≫ 권92 열전5 庾黔弼.

62) ≪高麗史≫ 권92 열전5 庾黔弼.

63)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8년 10월조, ≪高麗史≫ 권92 열전5 庾黔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사를 궤멸, 왕건을 구명하고 독기진(禿岐鎭)까지 추격, 왕건의 근심을 털어낸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했다[64]. 935년 4월에는 도통대장군(都統大將軍)이 되어 나주(羅州)로의 해상 통로를 회복하기도 했다[65].

특히 933년 5월, 후백제 신검(神劒)의 날선 공격 앞에 신라 왕도가 위험해지자 불과 80명의 장사를 거느리고 후백제의 예봉을 분쇄했다.

> 다-3)明年(933년)爲征南大將軍守義城府太祖使人謂曰 "①予慮新羅爲百濟所侵嘗遣大匡能丈英周烈弓裔希等鎭之②今聞③百濟兵已至槨山城阿弗鎭等處劫掠人物④恐侵及新羅國都.⑤卿宜往救." ⑥黔弼選壯士八十人赴之. 至槎灘謂士卒曰: ⑦"若遇賊於此吾必不得生還但慮汝等同罹鋒刃其各善自爲計."士卒曰:吾輩盡死則已豈可使將軍獨不生還乎?"⑧因相與誓同心擊賊旣涉灘遇百濟統軍神劒等黔弼欲與戰百濟軍見黔弼部伍精銳不戰自潰而走.⑨黔弼至新羅老幼出城迎拜垂泣言曰: "不圖今日得見大匡微大匡吾其爲魚肉乎."⑩黔弼留七日而還遇神劒等於子道與戰大克擒其將今達奐弓等七人殺獲甚多.捷至太祖驚喜曰 "非我將軍孰能如是?"[66]

위의 다-3)의 933년 후백제 공격 및 신라 왕도의 위기 상황은, 정확히 6년 전인 927년, 신라 경애왕이 견훤의 침공에 생사의 기로에 처한 것과 흡사하다. 양자는 묘한 기시감마저 불러일으킨다[67]. 이에

64) ≪高麗史≫ 권92 열전5 庾黔弼.
65) ≪高麗史≫ 권92 열전5 庾黔弼.
66) ≪高麗史≫ 권92 열전5 庾黔弼.
67) 다-3)의 기록에선 신라의 김부가 왕건에게 구원 요청을 했는지 확인되진 않는다. 하지만 다)-3 ②의 '금문(今聞)'이란 구절에서 왕건은 당시 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적의 동태, 개전에 대한 정탐등을 위한 첩보 및 보고 체제를 가동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927년 당시에도 불안한 당시 정세로 보아 주밀한 첩보 체제가 가동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왕건은 소상한 전황을 인지했음은 물론, 경애왕의 구원 요청이 있기까지 선제적 대응을 회피한 데 이어, 구원 요청 이후에도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933년 왕건의 전언을 전한 使人을 파견한 것(다-3)①)으로 나타난 점에서, 927년 당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유금필은 단 80명의 장사만으로(다)-3⑥) 사탄(槎灘)(다-3)⑧), 자도(子道)(다-3)⑩)에서 연승하며 백제군의 전열을 궤멸시켰고(다-3)⑧), 왕도의 백성을 구했으며 남녀노소의 열렬한 환영과 치사를 받았다(다-3)⑨). 933년 5월 유금필이 80명의 장사로 구원한 서라벌의 위기가, 정작 927년에는 왜 125배나 많은 1만의 구원군, 특히 '경병(勁兵)(나-1) ③)'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것일까. '경병(勁兵)'은 말 그대로 '굳센 병사'라는 뜻으로, 왕건이나 견훤의 그간 전투에서조차 전혀 묘사, 사용되지 않은 생경하기 그지없는 용어이다. 당시 왕건의 군사 편제에서 경기(勁騎)는 있었어도, 경병이란 편제는 없었다. 또 927년의 화급한 상황에서 왕건이 동원했어야 마땅한 군대는 '경병(勁兵)'에 앞서 경병(輕兵), 곧 날랜 병사여야만 했다. 고금의 기록은 제쳐두고서라도, ≪삼국사기≫에서 '경병(勁兵)'은 5회, ≪삼국유사≫에서는 1회만 나타난다. 곧 927년의 경우를 빼면 두 기록에서의 '경병(勁兵)' 용례는 4회 뿐이다[68].

한편 다-3)③의 혜산성(槥山城)[69], 아불진(阿弗鎭)은 어디에 있는

경북 북부 지방에 포진해 있던 고려군 진영에 즉각적 구원 명령을 전하지 않은 것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68) ≪삼국사기≫에서 '경병(勁兵)'은 5회, ≪삼국유사≫에서는 1회만 나타난다. ≪삼국사기≫에서는 B.C 16년(≪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3년 9월), A.D 14(≪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13년조), A.D 342(≪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고국원왕 12년) A.D 897(≪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927년(≪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4년 9월조)이며, ≪삼국유사≫에서는 927년(≪삼국유사≫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뿐이다. '보기(步騎)' 등의 용어와 달리, 왕건과 견훤의 용병에 있어 전혀 보이지 않던 추상적 용어의 사용은 구체적 군사의 편제가 마련되지 않은 결과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69) 槥山城에 대한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 현존 기록으론 충남 서산, 당진 일대의 沔川일 수 있다. 본래 백제의 槥郡이었던 면천은, 신라 景德王때 槥城郡이 되었고, 조선 태종 13년 沔川으로 개명된, 현 충남 해안 일대이다. 동쪽으로 洪州 경계까지 17리, 남쪽으로는 德山縣 경계까지 12리, 서쪽으로는 唐津縣 경계까지 13리에 해당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면천군). 그러나 충남 서해안을 겁략하는 것과 서라벌 왕도의 위험은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어 위 기록의 혜산성을 면천으로 비정하기는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곳일까. 두 곳으로 말미암아 신라 왕도가 위협에 처했다면 왕도에서 가까운 지점, 혹은 왕도로의 길목에 위치해야 옳을 것이다. 다-3)①에서 왕건은 왕도 보호를 목적으로 대광(大匡) 능장(能丈), 영주(英周), 열궁(烈弓), 총희(悤希) 등을 파견했다고 술회하고 있다[70]. 혜산성의 위치는 불명이나, 아불진의 위치는 확인 가능하다. 아불은 아화(阿火)로 짐작되는데, 넓은 벌판과 언덕을 끼고 있는 마을로 본래 아불(阿弗), 아울(阿鬱), 아을이라고 불러오다가 불을 화(火)로 표기하면서 아

어렵다.

70) 927년 9월, 당시 견훤은 근품성을 거쳐 고울부로 남하했다. 한데 왕건은 경북 북부 지방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던 고려군으로 하여금, 견훤을 추격토록 하는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았다. 고울부(영천)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꿰뚫고 있었던 왕건으로선 의외의 행동이었다. 이태 전(925년 10월 9일(己巳) 고울부의 能文이 왕건에게 來投하자, 서라벌 왕도와 인접하므로 위로하여 돌려보냈다는 구절(≪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2년조,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4년 10월 10일조)에 비추어 견훤의 침략이 있을 경우 왕건 자신과의 공조를 부탁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능문이 왕건을 찾은 것은 925년 10월 10일, 두 사람의 회동이 있은 지 6일 뒤인 10월 16일에는, 왕건은 견훤과 조물성을 두고 대치하기 때문이다. 영천이 가진 지리적 중요성, 능문이 왕건의 각별한 믿음 아래 돌아간 사실을 종합할 때 능문에게 파격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믿어진다. 실제 능문은 왕성을 賜姓받았다(≪비로암진공대사보법탑비≫). 일련의 前作들에 의하면 고울부는 왕건의 주군현 재편 과정과 관련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초 骨火縣의 金剛城 장군 皇甫能長이 왕건에게 귀부하자, 왕건은 그의 출신지 골화현과 臨皐郡을 합쳐 永州로 하고 道同과 臨川의 2현을 통괄하게 했다고 한다. 능장과 능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旗田巍, 〈고려왕조 성립기의 부와 호족〉,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1972, p.11 및 權眞澈, ≪고려태조의 민족통합정책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1997, 8, p.129에서는 양자가 동일 인물이라 보고 있다.), 왕건이 고울부를 왕도를 수호할 마지노선으로 삼았음은 확인이 가능해진다. 한데 고울부의 능문은 견훤을 방어하지 않았다. 왕건이 강조한 '왕도의 울타리'가 없어진 셈이었다. 왕도의 수문장 역할을 포기한 능문은 927년 이후에도 생존이 확인된다(≪비로암진공대사보법탑비≫). 왕건 역시 그토록 중시한 고울부가 견훤에게 떨어지려는 순간에도 남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애왕의 구원 요청이 있기 전까지, 마치 사건의 전모조차 전혀 알지 못한 듯 기록에선 나타나고 있다(다)-1의 사료 ①, ②,③).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71]. 아불은 아화고개를 칭한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위의 933년 5월에 예감한 위험성이, 927년 9월에는 왜 체감되지 않았으며, 왕건은 방관자적 자세를 유지한 것일까.

> 다-4)十八年太祖謂諸將曰 "羅州界四十餘郡爲我藩籬久服風化. 嘗遣大相堅書權直仁壹等往撫之近爲百濟劫掠六年之閒海路不通誰爲我撫之?"洪儒朴述熙等曰: "臣雖無勇願補一將." 太祖曰: "凡爲將貴得人心." 公萱大匡悌弓等奏曰: "黔弼可."[72]

위의 다-4)는 935년의 상황이다. 나주 해로의 복구를 둘러싸고 왕건과 공훤 등은 고려 조정 내 최고의 무장으로 유금필을 꼽는데 이견이 없음을 보인다. 특히 공훤이 자청하여 유금필을 추천한 대목은 정확히 무력과 용력에 있어 공훤과 유금필의 우열을 드러낸 확증이다[73].

한데 다-3)의 ①을 보면 신라 왕도를 방어할 빗장(방어 체계), 또는 다-3)의 ②의 첩보 체제가 가동되고 있었다. 한데 933년 5월 왕건이 말한 이 두 가지 요소(왕도 방어 체계, 첩보망)가 927년에는 아예 실종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음이 주목된다.

이밖에 927년 9월~11월의 시기 경애왕의 위기를 구할 주장의 목록에서, 차선의 인물로는 박수경이 있다. 박수경은 평산 출신으로 933년 신라 왕도의 위기를 구한 유금필과 동향(同鄕)(라-4의 ①)이며, 선조는 박혁거세로 이어진다[74]. 그와 관련한 기록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

71) 문경현, ≪高麗史硏究≫, 2000, 8 형설출판사, p.135에서도 阿弗鎭을 월성의 아화로 보고 있다.

72) ≪高麗史≫ 권92 열전5 庾黔弼7.

73) 포석정 사건, 경애왕의 죽음은 이에서 8년 전(927년)의 일이었다. 933년보다 8년 전인 927년 당시, 유금필의 힘과 무용은 더욱 뛰어났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그가 1만 구원군의 주장에 임명되지 않은 데에는 어디까지나 왕건의 숨겨진 마음, 心算이 작용했다고 보인다.

74)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軍史≫ 69, 2008, p.3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라-1) (920년)①四年, 春正月, 王與太祖交聘修好. ②二月, 康州將軍閏雄, 降於太祖. ③冬十月, 後百濟主甄萱, 率步騎一萬, 攻陷大耶城, 進軍於進禮, ④王遣阿飡金律, 求援於太祖. ⑤太祖命將出師救之, ⑥萱聞乃去[75].

라-2)(920년)①冬十月. 甄萱侵新羅, 取②大良仇史二郡, 至于進禮郡. 新羅遣阿粲金律來求援. ③王遣兵, 救之, 萱聞之引退. ④始與我有隙.[76]

라-3)(920년)①冬十月 ②甄萱入寇 王遣使求援于高麗 高麗君建救之 萱兵退 (③萱率步騎一萬 攻陷④大良 今陜川 仇史 今屬慶州 二郡, 至進禮郡(今在金海府西三十五里 一云今 錦山非也) ⑤王遣阿飡金律 求援于高麗 ⑥麗王遣兵救之 萱聞之引退) ⑦高麗君建遣其將朴守卿入衛王都(⑧甄萱數入寇 麗王命守卿爲將軍往鎭之 ⑨守卿性勇烈, 多權智 ⑩値萱再至, 輒以奇計敗之)[77].

라-4)朴守卿, ①平州人, 父大匡尉遲胤. ②守卿性勇烈, 多權智, 事太祖爲元尹. ③百濟數侵新羅, 太祖命守卿爲將軍往鎭之. ④値甄萱再至, 守卿輒以奇計敗之. ⑤曹物郡之戰, 太祖部分⑥三軍, 以大相帝弓爲上軍, 元尹王忠爲中軍, 守卿·殷寧爲下軍. 及戰, 上軍·中軍失利, ⑦守卿等獨戰勝. 太祖喜陞元甫, 守卿曰, "臣兄守文, 見爲元尹, 而臣位其上, 寧不自愧?" 遂幷爲元甫. ⑧勃城之役, 太祖被圍, 賴守卿力戰得出[78].

유금필이 933년 5월 80인의 장사(壯士)만으로 신라 왕도를 구했다면, 박수경은 920년 10월 견훤의 왕도 공격을 막은 것이 확인된다(라-3)의 ⑦). 920년 1월, 재위 2년의 왕건과 재위 4년의 신라 경명왕은

75)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4년조.
76)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8년 10월조.
77) ≪동사강목≫ 5下 경명왕 4년 10월조.
78) ≪高麗史≫ 권92 열전5 박수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교빙하며 화친을 체결했고(라-1)의 ①), 왕건이 강주(康州)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자(라-1)의 ②), 920년 10월 견훤은 '보기(步騎) 1만'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함하고 진례(進禮)로 진군했다(라-1)의 ③). '1만'이라는 전대미문의 숫자와, 두 차례나 실패했던 대야성 공격[79]을 성공한 것, 진례로의 진군 등에서 견훤의 군대는 공전의 성세였다고 짐작된다. 동진하던 견훤의 진로가 진례에 이르자[80] 신라 경명왕은 불과 9개월 전 수호한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라-1)의 ③, 라-2)의 ②).

920년의 이러한 상황은 포석정 사건(경애왕의 죽음)이 일어난 927년과 흡사한 면이 많은데, Ⓐ왕건의 영향력 확대(라-1)의 ②)와 이에 대응한 견훤의 공격(라-1)의 ③), Ⓑ신라의 구원 요청(920년 김율(金律), 927년 연식(連式)), Ⓒ개전의 시기가 병사의 이동이 쉽고 추곡이 끝나 군량 조달이 비교적 쉬운 계절(920년 10월, 927년 9월)이란 점, Ⓓ고려와 신라 모두 직관적으로 '견훤이 왕도를 겨냥하고 있다(920년

79) 견훤은 901년 1차 공격(≪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5년조)에 이어 15년간을 절치부심, 916년 다시 대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신덕왕 5년조)했다. 앞서 7세기 삼국 통일기에도 대야성은 신라의 서부 전선 사령부가 위치한 곳이었고, 이곳이 백제 의자왕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김춘추의 외교 행각이 시작되기도 할 만큼, 백제에서 '신라 王都'로의 지름길(short-cut)과 같은 요충지였다. 따라서 대야성 함락은 견훤 휘하의 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한 강력한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퇴각했다는 것은 고려 구원군의 主將이 매우 용맹무쌍한 자였다는 상징을 가능하게 한다.

80) 라-3)의 ④에서 견훤의 진로는 大良⇒仇史⇒進禮로 확인된다. 진례를 김해로 보는 견해(崔炳憲,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서울대 국사학과, 1978, pp.403-404, 김윤우, ≪신라말의 구사성과 진례성고≫, ≪사학지≫ 22, 1989, pp.137-16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 고적조), 이와는 달리 청도의 鳥山城으로 보는 견해(池內宏, 〈新羅末の眞禮について〉, ≪東洋學報≫ 7-3, 1917,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73쪽)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견훤의 진로가 대야성(현 경남 합천)⇒구사(현 경산시 자인)임을 고려하면 진례는 경산 자인에서 경주 사이의 한 지점이라고 봐야 할 것이며, 최소한 고울부(영천)만큼 왕도에 가까운 지점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진례, 927년 고울부)'고 파악한 점, Ⓔ구원을 요청한 신라왕이 '朴氏王'(920년 경명왕, 927년 경애왕)이란 점 등이다. 왕건은 즉시 '장수'에게 명하여 출병을 지시했고(라-1)의 ⑤, 라-2)의 ③). 그러자 1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견훤, 세칭 '악마적 초인이자 거칠 것 없는 거인', '범의 탈을 쓴 용맹한 이리'[81]는 그 소식을 듣고 단 한 차례의 국지전조차 없이 퇴각했다(라-1)의 ⑥, 라-2)의 ③). 견훤이 '전율하며 물러난' 셈인데, 이 대목이야말로 당대의 무적 견훤이 느꼈을 공포감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82].

대체 고려 구원군의 주장이 누구였기에 욱일승천의 견훤이, 그 이름만 듣고도 즉각 진격을 단념한 것일까. 당시 고려 주장의 이름은 박수경임이 기록에서 확인된다(라-3)의 ⑦). 게다가 박수경은 이후 견훤의 재침 역시 분쇄한 것이 확인된다(라-3)의 ⑩, 라-4)의 ④). 위명(威名)만으로도 견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전장에서 견훤과 대적하여 패퇴시킬 정도였던 만큼, 박수경은 가히 출중한 지략을 겸비했다고 이를 만하다[83]. 박수경의 졸년이 964년 8월 9일인 만큼[84], 920년 즈음

81)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5년 2월조.

82) 견훤의 퇴군은 진례 지방에서의 퇴군이지 대야성에서의 철군은 아니었다고 짐작된다. 왜냐하면 924년 후백제의 왕자 수미강(금강)이 대야성의 병력을 동원, 조물성을 공략한 것(≪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조)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후백제의 대야성 점거는 920년 10월~927년 7월까지 계속되었다. 까닭에 서라벌로의 첩경이나 다름없는 대야성이 후백제의 수중에 떨어진 이상, 신라의 안위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것이었다. 대야성은 앞서 642년 백제 의자왕 치세에도 함락된 적이 있었는데 신라는 압량주를 최전선으로 삼아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김춘추가 목전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외 외교에 나서게 된 시발점이 되기도 했을 만큼 낙동강 이서 지역을 통할하는 신라의 중요한 거점이자 요해지였다. 이처럼 중요한 대야성이 920년 함락되었고 이후 4년 뒤 즉위한 경애왕은 927년 죽음에 임하는 순간까지 불안한 치세를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른바 '다모클레스의 검(Sword of Damocles)' 아래의 처지였다고 보인다.

83) 박수경은 대야성에서 서라벌 왕도 사이에 이르는 지역의 일단에서 둔영을 꾸리고 장기 체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광개토대왕 군대의 서라벌 둔영처럼 외국군의 서라벌 주둔의 또 다른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그의 나이는 많아도 대략 30대 초, 중반으로 짐작되는 젊은 무장이며, 당시 견훤이 53세였던 점[85]을 고려하면 박수경의 위용은 짐작할 수 있다. 박수경은 왕건과 같은 패서의 호족출신이자 유금필과는 같은 동향이며, 성품이 용맹하고 강하며, 견훤이 재차 공격해오자 기묘한 계책으로 격파할 만큼(라-4의 ④), 권모와 지략이 풍부했다(라-4)의 ②). 925년 조물성 전투에선 홀로 승리를 거뒀으며(라-4)의 ⑥)[86], 발성 전투에선 적군에게 포위된 왕건을 힘을 다해 싸워 구명했으며(라-4)의 ⑧)[87], 936년까지 건재하여 신검과의 일리천 회전에선 유금필과 비슷하게 마군(馬軍), 곧 기병을 통솔한 장수였다. 이 점에서[88], 그는 빠른 진공과 우회, 교란 전략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용장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정종 즉위 초에 내란을 평정할 만큼[89] 내외의 군심(軍心)이 쏠린 인물이었다. 광종조차 숙청의 칼날을 박수경이 아닌 아들들에게 비껴 향한 것은 뚜렷한 그의 존재감을 보이는 일단일 것이다.

라-3)(≪동사강목≫)은 특히 ⑦에서 '고려군건견기장박수경입위왕도(高麗君建遣其將朴守卿入衛王都)'라 기록하고 있다. 왕도를 '입위'함은 백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것, 고려의 적극적 왕도 방어 등의 내용을

84) ≪高麗史≫ 권2世家2 광종 15년 8월 9일조. 이때에도 박수경은 자연사가 아니었다. 광종이 왕권강화를 기하려는 과정에서 자신과 일가에 대한 압박과 핍박을 가하여오자, 그 울분과 회한을 이기지 못하여 憤死하였던 것이었다.

85)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조.

86)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軍史≫ 69, 2008, p.38에서는 924년으로 보았으나, 박수경이 왕건이 친정할 때 보이는 3군 중 下軍의 주장으로 보이는 점, 박수경의 전투에 태조 왕건이 보이는 점, ≪동사강목≫ 5下 경애왕 2년 10월조에 분명히 유금필, 박수경이 함께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925년의 일이라 봄이 옳다.

87) 박수경의 왕건 求命은, 마치 BC 334년 Biga Çay를 건넌 직후 이루어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알렉산더를 구한 Cleitus에 비견할 만하다.

88)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19년(936) 9월 8일(甲午)조 및 문경현, ≪高麗史硏究≫, p.138, 형설출판사, 2000, 8.

89) ≪高麗史≫ 권92 열전5 박수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함축하고 있다. 라-3)이 주로 라-1), 라-2), 라-4)의 원문을 발췌, 조합, 구성하고 있음이 위에서 확인되지만, 라-3)⑦의 구절은 다른 기록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⑦을 안정복 개인의 주관이라고만 판단하긴 어렵다. 라-3)이 여러 기록의 원문을 정밀히 대조, 교열한 만큼[90], 박수경에게 '입위왕도(入衛王都)'의 중책이 맡겨졌었다는 것, 박수경이 여러 차례(최소 2차례)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사실(라-4)의 ④)이라 할 수 있다. 한데 불과 7년 뒤인 927년(경애왕 4년)엔 이런 '입위왕도'의 어떤 전조도 발견할 수 없다. 곧 927년 정월~8월까지 고려와 신라 연합의 전면 대공세로 견훤의 반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927년의 엄중한 시기, 왕건은 어떤 '입위왕도'의 사전, 예비 조치가 없었고, '입위왕도'의 역할을 박수경에게 다시 맡기지도 않았다[91]. 또 유금필이나 박수경처럼 견훤의 예봉을 꺾고 왕도를 구할 용력을 갖춘 무장 대신, 활약상이 전무하고 성정 또한 우유부단한 공훤을 주장에 임명했다[92].

---

90) 라-3)은 라-1), 라-2), 라-4)의 原文을 조합했다고 보인다. 라-3)의 ①은 {라-1)의 ③, 라-2)의 ①}, 라-3)의 ②는 {라-1)의 ④}, 라-3)의 ③은 {라-1)의 ③}, 라-3)의 ④는 {라-2)의 ②}, 라-3)의 ⑤는 {라-1)의 ④, 라-3)의 ⑥은 라-2)의 ③, 라-3)의 ⑧은 {라-4)의 ③, 라-3)의 ⑨는 {라-4)의 ②, 라-3)의 ⑩은 {라-4)의 ④}을 각기 조합하여 인용하였다고 여겨진다.

91) 925년 왕건에게 사실상 '입도숙위'의 사명을 부여받은 고울부의 능문(황보능장)조차(二年, 冬十月, 高鬱府將軍能文, 投於太祖, 勞諭還之, 以其城迫近新羅王都故也.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2년 10월조), 927년 아무런 저항이나 교전을 한 흔적이 없으며, 견훤과 대적하다 죽지도 않았다. 이는 능장이 다-3)의 ①에서 933년 5월까지 생존해 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27년 고려 구원군의 주장 공훤이나 휘하의 聯珠(連珠) 역시 936년까지 생존했음이 확인되는 것 역시 고려군이 결사항전으로써 구원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92) 여기서, 마땅히 보내야 할 장수를 보내지 않고, 보내지 말아야 할 장수를 보낸 것 자체에 왕건의 깊은 속셈이 도사리고 있다고 믿어진다. 곧 장수와 군대를 보내되 전쟁의 적임자가 아니며, 돌격전을 펼쳐 적의 포위망을 분쇄할 장군을 보내지 않은 왕건의 이러한 행동, 복심은 마치 조선의 광해군이 장수 강홍립에게 군사를 주면서도 교전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한 대목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고울부에 있으면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다-3)의 ⑩에서 왕건이 자언한 "비아장군숙능여시(非我將軍孰能如是)"처럼, 선택할 여러 경우의 수, 최적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묘연한 인물(공훤)을 왕건이 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공훤이 거느린 1만 군사 및 弔使의 파견 일자, 왕건의 친정 일자, 공산 전투 일자 등 후삼국 동란기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 사건들의 일정이 전부 불명하다. 이는 전후의 기록들과 비교해도,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편 왕건에게 있어서는 송악에서 출병하는 것보다 제 3의 전술을 선택하여 견훤과 대적하게 하거나 최소한 견훤을 사방에서 욱죄여 움직임을 느리게 할 방편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고울부(영천)의 능장, 벽진(성주)의 이총언, 대량성(大良城)(합천)의 고려 장수 김락을 동원, 이른바 견훤을 향한 삼각 공세 전술을 펼치는 방법이었다. 고울부의 향호(鄕戶) (황보)능장은 이미 925년 왕건에게 귀부한 상태였다[93]. 주목할 점은 대개 귀부의 경우 사신을 보내 서신을 전달하는 방식임에도 능장이 왕건의 회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직접 군사 및 휘하 무리를 이끌고 송악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히 능장 일개인의 귀부라기보다 고울부 유력 세력 전체의 이주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길 없다. 이후 왕건과 능장의 결속의 정도가 강화되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량성(합천) 역시 927년 7월 고려에게 강제 점거된 상태였다. 927년 정월 왕건은 용주 공격을 필두로 경북 북부, 충북 북부를 자신이 공략함과 더불어 남방에 고려의 장군들을 보내어

927년 왕도의 울타리 역할을 포기한 능문이 왕건에게 통일에 기여한 공(輔佐之功)을 칭찬받아 佐丞의 관품을 하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旗田巍, 〈고려왕조 성립기의 부와 호족〉,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1972, p.9-11), 그 역할과 행적이 오리무중인 '유령 군단'의 주장 공훤 역시 왕건에게 동일하게 左丞의 관품을 하사받았다는 것(高麗國彌智山菩提寺故敎諡大鏡大師元機之塔碑銘)은, 두 사람 모두 경애왕의 죽음을 방관했던 인물들이란 점에서 우연의 일치치곤 묘하게 느껴진다.

93) 황보능장은 927년 이후에도 생존하였고, 이후 왕씨 성을 하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문경현, ≪고려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 연구≫, 형설출판사, 1987. p.130, pp.154-15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양동작전을 개시했다. 4월에는 해군장군 영창(英昌)·능식(能式) 등이 강주(康州)(진주)의 하돌산(下突山) 등 4읍(邑)을 무력 점령했다[94]. 나아가 927년 7월에는 강주에서 북상한 고려 장군들, 원보(元甫)·재충(在忠)·김락(金樂) 등이 대량성(합천)을 공략, 백제 장군 추허조(鄒許祖) 등 30여 명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였다[95]. 대량성(합천)은 전술한대로 견훤이 세 차례의 시도 끝에 920년 가까스로 차지했던 전략적 요해지였다. 뿐만 아니라, 924년 후백제의 왕자 금강 등이 조물성을 공격할 때 대량성(합천)의 군사를 병력으로 동원했을 만큼 실전 능력을 갖춘 곳이었다[96]. 대량성(합천)은 낙수(洛水) 이서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서 풍부한 물산과 병력, 군량이 갖춰져 있었다. 뿐 아니라 924년 후백제 왕자 금강의 조물성 전투에 동원된 점에서, 3년 뒤인 당시 경북 내륙 일대의 지리와 전투 경험을 갖춘 병력을 차출, 동원할 병력원(兵力源)이었다고 보인다. 또 일대가 920년 이후 7년 간 후백제군의 지배하에 있었던 점에서, 또 추허조를 비롯한 후백제 장군들을 포로로 한 점에서, 김락 등이야말로 후백제의 전술과 전략, 용병의 추이에 대해서 고려 군 내에서 접근성, 이해도가 가장 높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점 등에서 고려의 원보(元甫)·재충(在忠)·김락(金樂) 등은 전투 경험을 갖춘 노련한 현지인 차출이 가능했고, 달리 합천에서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성주, 상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성주 지역에는 고려의 또 다른 우군이 존재하고 있었다. 벽진(성주)의 이총언(李悤言)이 그러한데 그 역시 왕건에게 귀부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왕건에게 파견할 정도로 충성을 맹서했다. 이총언은 왕건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 이영(李永)을 보내었다[97]. 이에 부응하듯 왕건 역시 성주

94) ≪高麗史≫ 세가1 태조10년 4월 8일조.
95) ≪高麗史≫ 세가1 태조10년 7월 10일조.
96)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97) ≪高麗史≫ 권92 열전5 이총언. 한편 旗田巍, 〈고려왕조 성립기의 부와 호족〉,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1972, p.27에선 시기, 지점, 왕건과의 관계, 행동 등 제반 전거를 들어 이총언=良文이라 상정하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지역에 고려의 정조 색상을 파견하고 있었다[98]. 고울부 역시 능문 휘하의 배근(盃近), 명재(明才), 상술(相術), 궁식(弓式) 등이 고려 수도 개경에 머물렀다. 이에 비추어 군략과 전술에 밝은, 색상과 비견되는 다수의 고려인 역시 벽진의 경우처럼 고울부에 파견되었다고 보인다. 한데 왕건은 이처럼 주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전술을 경애왕의 죽음 직전에는 구사하지 않았다. 왕건이 남방의 김락을 북상시킨 것은 경애왕 사후, 자신의 친정 시기에 즈음해서였다[99]. 경애왕 죽음 직전 벽진 역시 단독으로 견훤의 화공에 직면했다. 또 이를 막던 색상조차 포로가 되어 죽임당했으나[100] 벽진의 이총언은 고울부의 공훤처럼 죽지 않았다[101]. 왕도를 방어하는 결사항전은 애초 없었던 셈이다. 경애왕 죽음 직전, 왕건은 적극적 공세 혹은 '여러 세력을 묶는 수세 전술'이 아닌, 926년의 예처럼 각개 수성 전술을 구사했다고 믿어진다. 다시 말해 경애왕 죽음에는 왕건의 방관이 깊이 개재하고 있었다.

어찌하여 왕건은 군사 동맹의 한 축인 경애왕이 공전의 위기에 처하였음에도 이처럼 방관적 행동을 취한 것일까. 동맹의 한 축이 무너

98) 고려인 색상이 이총언의 지역에 있었고, 전투 도중 사망한 점은 귀부 지역에 대한 고려의 간접적 통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의 정조 색상이 공훤을 주장으로 한, 고려 구원군의 일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1) 색상은 견훤이 자신의 편지에서 군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할 만큼 비중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한데 그러한 색상이 공훤 휘하 구원군 명단에서는 이름을 찾을 수 없다. 2) 구원군의 일원인 색상이 견훤에게 사로잡혔다면 고려 구원군이 견훤에게 패전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견훤이 색상 외 다른 구원군을 격파한 사실을 덧붙여 말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다. 3) 송악에서 서라벌로 온다면 그 경로가 굳이 벽진(성주)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점 등에서 색상을 구원군의 일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99)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0년 9월조. ≪高麗史≫에서는 927년 9월의 일이라 하여 경애왕 생전의 일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왕건과 견훤의 公山桐藪(大邱北方, 達城郡 公山面)는 경애왕 사후 일어난 일이므로 김락의 북상 역시 경애왕 사후임이 틀림없다.

100)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및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조에 공히 인용된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서한' 및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10년 10월, 11월.

101) ≪高麗史≫ 세가1 태조21년 7월 7일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지면 왕건 자신의 세력도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일견 견훤과의 대립에서 치명적인 열세로 돌아설 수 있었다. 왕건은 왜 이러한 위험한 파국을 감수하며 굳이 무리수를 둔 것일까.

우선 왕건은 견훤과의 대전에서 승산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었다[102]. 견훤의 군세는 왕건을 능가하였고[103], 실제 경애왕 사후 치러진 동수 전투에서도 왕건은 대패하였다(가-1) ⑰). 백제의 질자 진호가 죽은 직후에도 왕건은 적극적 군사 대응 대신 수성만을 고집한 전력이 있었다[104]. 또한 왕건은 시종 신라 병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105]. 이런 왕건에게 있어, 신라 내 강한 군주의 등장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왕건은 내심 신라의 부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약화를 바라고 있었다. 신라의 힘은 왕건이 견훤을 견제하기 위하여 동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차원의 정도에서 멈춰야만 했다. 군사의 진퇴에까지 사사건건 개입하며 주군처럼 행동하는 경애왕의 등장은 껄끄럽기 그지없는 것으로서, 애초 왕건이 원하는 신라왕의 모델이 아니었다[106]. 이제 자신

---

102) 申虎澈, ≪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일조각, 1993. p.102. p.123에서도 당시 견훤의 압도적 군세가 언급되고 있다.

103)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

104)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9년 4월.

105) 왕건이 집권 초기의 청사진으로 계림(신라) 정벌을 표방하였고(『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총서 원년 3월조), 이후에도 신라 정벌을 염두에 두었던 점(『삼국유사』 권1 기이1 천사옥대)은 경애왕과 왕건 사이 동맹의 본질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할 것이다. 특히 김율과 관련한 행간에는 신라 병합을 두고 심도 있는 문답과 조정이 오가고 있다. 결과 왕건은 신라왕을 존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도 않았다.(박순교, 앞의 논문, ≪인문연구≫ 78, 2016. pp.81-82)

106) 저돌적인 성정의 경애왕은 왕건에게 거북한 존재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후삼국 시대 미묘한 역관계로 인하여 경애왕은 견훤은 물론 왕건으로부터도 일정한 거리감이 생겼다고 여겨진다. 경애왕이 비록 왕건을 향하여 '대왕'이라 호칭하면서도 실제로는 고려 군사의 진퇴 문제, 대외 관계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왕건의 적잖은 반발을 초래할 여지도 있었다. 그것은 왕건이 경애왕의 충고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왕건과 경애왕의 엇박자는 외교적 수사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 동맹국 사이에서 오갈 내용으로 믿기 힘든 파열음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이 원하지 않는 경애왕이 견훤의 손에 거세된다면, 차제에 왕건은 시해의 원죄를 주적 견훤에게 씌워 민심을 일거에 자신에게 돌려 약세를 만회하고[107] 군세를 떨칠 수 있으리란 현실적 판단이 가능했다. 이른바 '차도살인'의 전술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108]. 실제 930년 고창 전투에서 왕건은 국왕 시해의 원죄를 견훤에게 씌워 재지세력의 응원을 이끌었고[109], 마침내 승리하였다.

더불어 난신적자 견훤에 의해 새로이 옹립된 신라왕은 정통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110]. 신라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신라 내 내

아닐 수 없다.(박순교, 앞의 논문, ≪인문연구≫ 78, 2016, pp.81-82)

107)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및 ≪三國遺事≫ 기이2 후백제 견훤조에 공히 인용된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견훤을 경애왕 시해범으로 공박하는 일련의 내용은 이를 함의한다. 동시에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및 ≪三國遺事≫기이2 후백제 견훤조에 공히 인용된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서한'에서 견훤이 왕건을 향하여 여러 번 해명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왕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민심을 향한 선전 책동 역시 치열하게 행해졌을 개연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

108) 견훤 역시 자신의 손이 아닌 김부의 손을 빌려 경애왕을 거세하려 시도했다(조범환, 〈신라말 박씨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1991, pp.19-20, 이명식, 〈신라말 박씨왕대의 전개와 몰락〉, 2006, pp.22-23, 신호철, ≪후백제 견훤 정권 연구≫, pp.116-122). 견훤 역시 차도살인의 전술을 동원, 활용했던 셈이다. 견훤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경애왕을 제거하고, 이어 친견훤의 괴뢰 정권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다만 시해의 원죄에서 자유롭고자 김부와 같은 내응 세력을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이로 보면 왕건과 견훤은 모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경애왕을 제거, 실익을 챙기고 국면의 전환과 재편을 도모했던 셈이 된다.

109) ≪高麗史≫ 권2 세가2 太祖2 13년 정월조. ≪동사강목≫ 5下 김부 4년 정월 21일조. 고창 지방의 민심이 경애왕 죽음으로 인해 변화했음은 ≪승정원일기≫ 영조2년 병오(1726, 옹정4 6월 5일조), ≪四佳文集≫ 卷5, 安東權氏家譜序,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안동대도호부 인물 김행 편 등에 나타나고 있다.

110) 견훤이 김부를 옹립하였으되, 왕이 아닌 권지국사란 한 대목(나-1) ⑫의 의미를 음미하지 않을 수 없다. 권지는 정식이 아닌 임시라는 의미로서, 난신적자인 견훤의 손에 옹립된 만큼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닌 존재일 수밖에 없었음을 보이는 일단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분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인근 지역의 귀부나 병합은 왕건에게 더욱 손쉬워질 수 있었다[111]. 군사적 희생을 통하여 경애왕을 살리는 것보다 차라리 경애왕을 죽여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왕건에게 더 큰 실익이 있었다. 경애왕의 죽음을 통해 민심과 실익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야흐로 왕건의 눈앞에 이른 것이었다. 다만 왕건은 경애왕을 구하고자 노력했던 측면을 부각시키고 선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포장의 일환에서 1만의 군사를 모우며 경애왕이 죽기까지 시간을 끌었다. 1분1초가 화급한 순간에 그처럼 대규모의 군세, 1만의 군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출정하겠다는 것이나, 무용조차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주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救援)의 골든타임'을 놓치려고 계획하고 작심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경애왕이 죽은 이후에조차 왕건은 즉각 출병하는 대신 조사(弔使)를 먼저 파견하였고(나-2) D), 그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직접 거병, 친정하였다[112]. 조사 파견→거병과 친정의 순서는 주목되는 대목이다. 왕건의 말처럼 존주(尊主)의 진정을 지녔다면 왕건은 거병과 친정→조제의 순서로 이뤄져야 옳다. 왜 왕건은 경애왕의 죽음 직전에도, 죽음 직후에도 즉각 거병하지 않았으며, 죽음 이후에조차도 조사를 먼저 파견한 것일까. 왕건이 보낸 조사는 비밀리 파견한 것일 리 없으며, 흰 천을 머리와 몸에 두르고 조기(弔旗)를 말에 꽂고 경애왕 시해를 온 천하에 공포, 견훤의 죄악상을 팔방에 퍼뜨리며 내려왔을 것이 틀림없다. 조사의 행로는 송악~서라벌까지 요소요소를 거치는 만큼, 지방 세력의 동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왕건의 조사 파견은 이에 경애왕 시해의 책임을 견훤에 씌우고 민심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려는 고도의 포석, 선전 전술의 일환이었음이 확실하다.

111)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4년 9월조, ≪高麗史≫ 권1 태조 13년 2월조의 동해안 110여 성의 집단 귀부는 가장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112)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원년조, ≪고려사≫ 세가1 태조 신성대왕10년 9월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이후 왕건은 왕을 시해한 견훤을 징치한다는 명분과, 민심이 자신에게 기울었다는 공전의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거병하여 내려왔으나 동수에서 패하고 말았다(가-1) ⑰). 하지만 3년 뒤 다시 한 번 경애왕의 죽음을 명분으로 삼았고, 민심을 되돌려서 마침내는 고창에서 승리, 후삼국의 판도를 유리하게 반전한 것이었다. 결국 경애왕을 희생양으로 삼아 통일전쟁에서의 우세를 기하려 한 왕건의 판단과 전술, 현실적 바람은 보기 좋게 주효했던 셈이다.

Ⅴ. 맺음말

927년의 대국(大局)을 보면, 정월~8월에 걸친 왕건의 친정, 927년 9월부터 경애왕의 죽음까지 견훤의 반격이 점철되어 있다. 견훤은 왕건이 앞서 점령한 경북 내륙 지방을 우선 타격하였다. 후백제 전역에 심어 놓은 고려 세작의 첩보망, 경북 내륙에 위치한 고려의 일선 둔영, 고울부를 관장하고 있던 능문 등 왕건에게는 견훤의 침입을 알릴 세 루트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견훤의 침습 첩보는 왕건에게 보고되었고, 소상한 전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터인데, 신라 경애왕의 구원 요청을 받을 때까지 왕건의 행동이 없다. 이로써 삼국의 정황을 누구보다 면밀히 꿰뚫고 있었고, 있었어야 마땅한 왕건이 견훤의 반격이 개시된, 초미의 상황에서 신라의 구원 요청이 있기까지 선제적 대응을 취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음이 확인된다. 신라 구원 사절이 왕건에게 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부터 왕건의 심각한 방관을 보이는 확증인 셈이다.

이후 왕건은 '1만 구원군'을 출병시켰다고 하나, 출병 일자, 동선, 편제 등이 전부 불명이다. 이는 월, 일까지 밝힌 전후의 기록들과 비교해도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출병했다는 고려 구원군은 아예 신라 왕도에는 아예 이르지도 않았다(나-1) ④,나-3)④). 구원군의 중간 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로, 구원군이 막힌 원인, 구원군과 백제와의 전투 역시 아예 없다. 출발은 있었으되, 과정과 도착이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사건의 이면엔 왕건의 방관, 모종의 술수가 담겼다고 여겨진다.

구원군의 주장과 관련, 이러한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신라·고려 동맹의 일환으로서 고려는 신라 왕도를 구한 것, 혹은 구하려 한 시도는 세 차례, ① 920년 10월, ② 927년 9월, ③ 933년 5월의 경우였다. ①의 경우는 고려 주장이 박수경, ②의 고려 주장은 공훤(公萱), ③의 고려 주장은 유금필이었다. 한데 ①, ③은 신라 왕도 방어에 성공했으나, 유독 ②만 실패했다. ①의 경우 '보기(步騎) 1만'을 거느린 견훤이 박수경의 이름만 듣고도 퇴각했으며, ③에서는 유금필이 불과 장사 80인 만으로 적선을 돌파, 왕도를 구하였다. 이에 비하여, ②의 경우 동원된 고려 군사의 규모가 '경병(頸兵) 1만'이었음에도 참담한 실패로 귀착되었다.

공훤을 둘러싼 기록을 일별하면, 공훤은 위기를 타파하고 적선을 허물며 돌격할 성정의 인물이 아니었다. 936년 신검과의 최후 회전에서도 유금필이 북방의 경기(勁騎) 9,500명을 통솔한 것과 달리 공훤은 3군의 원병, 보급 역할을 맡았을 뿐 실제 전투에조차 투입되지 않았다. 936년 당시 유금필이 마군(馬軍) 중에서도 최강의 경기를 통솔한 반면, 고려군 편제에서 확인되는 37명의 장수(견훤 제외) 중 공훤은 35번째로 거명되고 있다. 또 휘하의 기병 역시 불과 300이었을 뿐이다. 결국 왕건이 선택할 여러 경우의 수, 최적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묘연한 인물(공훤)을 택했다는 것은 왕건의 심각한 방관을 드러내는 증좌에 다름 아니다.

왕건이 경애왕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방관한 데에는 1) 견훤에 대비(對比)한 군사의 열세, 2) 경애왕과의 미묘한 정치, 외교적 갈등, 3) 경애왕과 신라의 부흥에 대한 견제와 차단 4) 견훤의 경애왕 시해로 말미암아 이뤄질 민심의 극적 반전과 자신에게 떨어질 현실적 이득, 5) 새로 옹립될 신라왕의 정통성 한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를 이용한, 신라 지역 내 귀부와 병합의 가속화 등을 면밀히 계산에 두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왕건의 현실적 셈법은 실제 적중하였다.

【參考文獻】

≪三國史記≫≪三國遺事≫≪동사강목≫≪승정원일기≫≪四佳文集≫ ≪高麗史≫≪삼국사절요≫
≪동문선≫≪신증동국여지승람≫≪高麗國彌智山菩提寺故教謚大鏡大師元機之塔碑銘≫

權五燦, ≪신라의 빛≫, 경주시, 1980.
권진철, ≪고려태조의 민족통합정책연구≫, 강원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김갑동, ≪나말 려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9.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류영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2004.
문경현, ≪고려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 연구≫, 형설출판사, 1987.
문경현, ≪고려사연구≫, 경북대출판부, 2000.
문수진,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통일과정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申虎澈, ≪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일조각, 1993.
음선혁, ≪고려태조 왕건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5. pp.1-188.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혜안, 2010. pp.1-336.
전수병 외, ≪주제별로 본 한국역사≫ 서경문화사, 2005.
정선용, ≪고려 태조의 신라정책 연구≫, 서강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1972.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軍史≫ 69, 2008.
김윤우, ≪신라말의 구사성과 진례성고≫, ≪사학지≫ 22, 1989.
申虎澈, 〈신라의 멸망과 견훤〉, ≪충북사학≫ 2, 1989.
음선혁, 〈신라 경순왕의 즉위와 고려 귀부의 정치적 성격〉, ≪전남사학≫ 11, 1997.
이명식, 〈신라말 박씨왕대의 전개와 몰락〉, ≪대구사학≫ 83, 2006.
윤정업, 〈≪三國遺事≫기이 제2 '무왕'조의 서사연구〉, ≪택민국학논총≫ 13, 2014.
전기웅, 〈진성여왕대의 화랑효종과 효녀지은 설화〉, ≪한국민족문화연구≫ 25, 2005.
정우락, 〈포석정 혹은 신라의 빛과 그늘〉, ≪남명원보≫ 30, 2003.
정요근, 〈고려전기 역제의 정비와 22역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정요근,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한국고대사연구≫ 63, 2011.
曺凡煥, 〈신라말 경순왕의 고려 귀부〉, ≪이기백 고희기념논총≫, 1994.
_____, 〈신라말 박씨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학보≫ 129, 1991.
_____, 〈신라말 화랑 세력과 왕위계승〉, ≪사학연구≫ 57, 1999.
최덕민, 〈팔공산의 왕건설화 지명과 공산전투의 지리학적 탐색〉, ≪지리교육≫ 13, 2006.
崔炳憲,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1978.

※ 이 論文은 2017年 2月 15日 投稿 完了되어 2017年 3月 15日까지 審査委員들이 審査하고, 2017年 3月 20日까지 審査委員 및 編輯委員會議에서 揭載로 判定되었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Silla king Kyungae(景哀王)'s Death and Koryo Salvation Army's Question : Focusing on Salvation Army's Dispatching

Park Soon Kyo
(Korea Army Academy)

＜Abstract＞

Silla king Kyungae(景哀王) and Koryo WangKeun(王建) together occupied inland areas Kyungpook(慶北)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to August 927. Nevertheless, god of war, Kyeonhwon(甄萱) kept silent. Kyeonhwon(甄萱)'s silence was the time of the night before the wind storm, where anxiety, uneasy peace, war were foreseen. From the consideration, there must have been activities of moles, fixed agent whom WangKeun(王建) had sent. As a result, It is thought that all movements of Kyeonhwon(甄萱) had been reported to WangKeun(王建). WangKeun (王建) pierced the situation of the Three Kingdoms more closely than anyone else.

Kyeonhwon(甄萱)'s retaliation was begun in September, 927. And Kyeonhwon(甄萱) aimed at the area that WangKeun(王建) had previously occupied. That is, intense battle crossed over time in the same war zone (927 years). The moment that Kyeonhwon(甄萱)'s counterattack was initiated, WangKeun(王建) drew time without taking preemptive action until Silla's request for relief was received in a bogus situation. Furthermore, in the record, it appears as if WangKeun(王建) had not recognized the invasion information of Kyeonhwon(甄萱) from the beginning. the rescue army of the 1st cavalry did not reach Sorabol, until the moment of king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

Kyungae(景哀王)'s death. The traces of the relief forces have fallen into the labyrinth, and it is only natural to increase the suspicion of allegation, because a series of facts is unavoidable.

Three attempts (soldier) were tried to help the crisis of the Silla Kings on record. One point, even though the size of the dispatch soldier was the largest, only “Ironside of ten thousand soldiers” that Konghwon(公萱) had led, failed. In the final battle in 936, Konghwon(公萱) underwrote only the supply role of the 3 groups, and was not put into actual battle. Of the 37 longevity (excluding Kyeonhwon(甄萱)) who was confirmed by the Koryo(高麗) military organization at that time, Konghwon(公萱) was listed as 35th. Also, there were only 300 cavalry members. Konghwon(公萱) was not a person which could breaks down the crisis, breaches the enemy line and assaults. In the end, WangKeun(王建) chose the most mysterious person, Konghwon(公萱) as commander-in-chief(總帥), of multiple cases of choice, among the best people. This can only be seen as WangKeun(王建)'s serious onlooking equanimity in the death of king Kyungae(景哀王).

Key Words : Samkuksaki(≪三國史記≫), Kyeonhwon(甄萱), king Kyungae(景哀王), Poseokjeong(鮑石亭 Pavilion of Stone Abalone), Kimbu(金傅), Silla(新羅), WangKeun(王建), Samkukyusa(“三國遺事”)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5 14:32(KST)